

#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서정조\*, 김두화\*\*, 김성현\*\*\*

## 〈 목 차 〉

I. 머리말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II. 조사방법 및 내용	4.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1. 조사대상	5. 가치관 및 사회관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6. 상담·봉사센터 이용
III. 결과 분석	IV. 요약 및 제언
1. 개인 및 가정생활	참고 문헌
2. 대학생활	Abstract

## I. 머리말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부(과) 선택의 과정 및 지속적인 수학여부, 교수와의 관계, 대인관계, 사회 문제, 가치관,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조사·연구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특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과정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수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사무원

## II. 조사방법 및 내용

###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04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실시되었으며, 각 학부(과)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고, 전체 신입생 2,8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812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전체 신입생의 6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은 <표 A>와 같다.

<표 A> 대학별 조사대상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응답자수	274 (15.1)	228 (12.6)	299 (16.5)	146 (8.1)	73 (4.0)	111 (6.1)	299 (16.5)	363 (20.0)	19 (1.0)	1,029 (56.8)	783 (43.2)	1,812 (100.0)

<표 A-1> 남녀별 조사대상수(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남	여	계	비 고
'01	1,154 (51.7)	1,077 (48.3)	2,231 (100)	
'02	1,071 (55.5)	858 (45.5)	1,929 (100)	
'03	878 (55.1)	716 (44.9)	1,594 (100)	
'04	1,029 (56.8)	783 (43.2)	1,812 (100)	

###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03학년도에 사용했던 질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동일하다. 조사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출생년도, 생활근거지, 입학 후 거주할 곳,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의 생존 여부, 보호자 학력 및 직업, 가족의 월수입, 가정 분위기, 부모에 대한 느낌 및 관심도, 자신의 심

리/정서적 건강상태,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 2) 대학생활 관련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일,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 예상되는 문제점, 기숙사 입사에 대한 희망 여부, 아르바이트 욕구도 및 원하는 이유, 장학금 필요 여부와 이유,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갖고 싶은 직종,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본교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본교를 지원한 이유, 본교 지원 시 정보의 수집 경로, 본교의 홍보 방법 및 영향, 자긍심의 정도, 학부(과)를 지망한 시기 및 적합도, 전과 및 복수전공에 대한 인지도, 복수전공을 원하는 대학 및 이유

## 4)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관련

기대하는 교수상 및 강의방법, 문제의 의논 상대, 대인관계의 정도

## 5) 가치관 및 사회관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

## 6) 상담·봉사센터 관련

상담 여부 및 상담 내용, 심리검사, 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분야

이상과 같이 6개 영역 5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성별로 응답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Ⅲ. 결과 분석

### 1. 개인 및 가정생활

#### 1-1. 출생년도

신입생의 출생년도별 빈도를 <표 1-1>에서 살펴보면 '85년에 출생한 학생이 1,279명(70.6%), '86년 이후 출생학생이 305명(16.8%), 그 다음 '84년 출생학생이 102명(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연령은 6.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순위 경향은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 '85년도와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이 86.3%, 여학생인 경우 88.8%로 여학생의 수가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출생년도 분포

〈단위: 명(%)〉

출생년도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78년이전			7 (3.1)	3 (1.0)	3 (2.1)	1 (1.4)	1 (.9)	5 (1.7)	2 (.6)		17 (1.7)	5 (.6)	22 (1.2)
79년			3 (1.3)	1 (.3)	1 (.7)			3 (1.0)	1 (.3)		6 (.6)	3 (.4)	9 (.5)
80년			3 (1.3)	4 (1.3)		2 (2.7)		5 (1.7)	1 (.3)		7 (.7)	8 (1.0)	15 (.8)
81년		2 (.7)	4 (1.8)	2 (.7)	3 (2.1)	1 (1.4)	1 (.9)	2 (.7)	4 (1.1)		15 (1.5)	4 (.5)	19 (1.0)
82년		2 (.7)	3 (1.3)	2 (.7)		2 (2.7)	1 (.9)	5 (1.7)	4 (1.1)		16 (1.6)	3 (.4)	19 (1.0)
83년		7 (2.6)	5 (2.2)	4 (1.3)	5 (3.4)		1 (.9)	9 (3.0)	2 (.6)	1 (5.3)	18 (1.7)	16 (2.0)	34 (1.9)
84년		15 (5.5)	8 (3.5)	17 (5.7)	16 (11.0)	4 (5.5)	1 (.9)	26 (8.7)	11 (3.0)	4 (21.1)	57 (5.5)	45 (5.7)	102 (5.6)
85년		201 (73.4)	159 (69.7)	210 (70.2)	95 (65.1)	50 (68.5)	81 (73.0)	193 (64.5)	283 (78.0)	7 (36.8)	711 (69.1)	568 (72.5)	1279 (70.6)
86년이후		47 (17.2)	33 (14.5)	56 (18.7)	23 (15.8)	13 (17.8)	25 (22.5)	51 (17.1)	51 (14.0)	6 (31.6)	177 (17.2)	128 (16.3)	305 (16.8)
무 응 답			3 (1.3)						4 (1.1)	1 (5.3)	5 (.5)	3 (.4)	8 (.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1-1〉 출생년도(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01				311 (13.9)	1592 (71.4)	328 (14.7)
'02			318 (16.5)	1389 (72.0)	222 (11.5)	
'03		297 (18.6)	1143 (71.7)	154 (9.7)		
'04	305 (16.8)	1,279 (70.6)	228 (12.4)			

※ 조사년도별 출생시기에서 최근은 년도 이후, 최저는 년도 이전을 모두 포함한 비율임

1-2. 학생의 생활근거지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제주시'가 60.4%로 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이 각각 9.7%와 9.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남제주군'이 약간 적은 7.3%의 분포를 보여, 본도에 거주하는 신입생이 총 87.2%인 반면, 타 시·도는 12.3%에 해당한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시'인 경우 63.2%→60.4%(남61.2%→57.8%, 여65.6%→63.9%)로 2.8%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타 시·도'는 5.9%→12.3%(남7.6%→14.5%, 여3.7%→9.7%)로 7.6%의 증가를 나타내어 타 시·도에서 우리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올해는 이례적으로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둔 신입생이 0.1%를 보이기도 했다.

〈표 1-2〉 신입생의 생활근거지

〈단위 : 명(%)〉

구 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 주 시	191 (69.7)	154 (67.5)	137 (45.8)	90 (61.6)	38 (52.1)	73 (65.8)	169 (56.5)	230 (63.4)	13 (68.4)	595 (57.8)	500 (63.9)	1095 (60.4)
서 귀 포 시	17 (6.2)	23 (10.1)	21 (7.0)	24 (16.4)	7 (9.6)	5 (4.5)	29 (9.7)	47 (12.9)	3 (15.8)	106 (10.3)	70 (8.9)	176 (9.7)
북 제 주 군	29 (10.6)	24 (10.5)	23 (7.7)	13 (8.9)	8 (11.0)	11 (9.9)	18 (6.0)	51 (14.0)		96 (9.3)	81 (10.3)	177 (9.8)
남 제 주 군	22 (8.0)	18 (7.9)	21 (7.0)	5 (3.4)	8 (11.0)	8 (7.2)	24 (8.0)	26 (7.2)	1 (5.3)	82 (8.0)	51 (6.5)	133 (7.3)
서 울	1 (.4)	2 (.9)	9 (3.0)	1 (.7)	6 (8.2)	4 (3.6)	14 (4.7)		1 (5.3)	26 (2.5)	12 (1.5)	38 (2.1)
부 산	4 (1.5)	2 (.9)	21 (7.0)	7 (4.8)	1 (1.4)	1 (.9)	18 (6.0)			38 (3.7)	16 (2.0)	54 (3.0)
대 구			13 (4.3)	1 (.7)	1 (1.4)		2 (.7)	2 (.6)		9 (.9)	10 (1.3)	19 (1.0)
대 전	1 (.4)		2 (.7)		1 (1.4)		1 (.3)	1 (.3)		2 (.2)	4 (.5)	6 (.3)
인 천		1 (.4)	4 (1.3)			8 (7.2)	2 (.7)	1 (.3)		14 (1.4)	2 (.3)	16 (.9)
광 주			10 (3.3)	1 (.7)			3 (1.0)			9 (.9)	5 (.6)	14 (.8)
울 산			3 (1.0)	1 (.7)						3 (.3)	1 (.1)	4 (.2)

생활근거지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 기		2 (.7)		10 (3.3)	1 (.7)	1 (1.4)		3 (1.0)	2 (.6)		14 (1.4)	5 (.6)	19 (1.0)
강 원		1 (.4)										1 (.1)	1 (.1)
경 북		1 (.4)		5 (1.7)		1 (1.4)		1 (.3)	1 (.3)		6 (.6)	3 (.4)	9 (.5)
경 남			1 (.4)	7 (2.3)				9 (3.0)			12 (1.2)	5 (.6)	17 (.9)
충 북				1 (.3)		1 (1.4)		1 (.3)			2 (.2)	1 (.1)	3 (.2)
충 남				3 (1.0)				1 (.3)			2 (.2)	2 (.3)	4 (.2)
전 북		1 (.4)			1 (.7)			2 (.7)			2 (.2)	2 (.3)	4 (.2)
전 남		3 (1.1)	2 (.9)	8 (2.7)	1 (.7)			1 (.3)	1 (.3)		8 (.8)	8 (1.0)	16 (.9)
해 외								1 (.9)	1 (.3)		1 (.1)	1 (.1)	2 (.1)
무 응 답		1 (.4)	1 (.4)	1 (.3)					1 (.3)	1 (5.3)	2 (.2)	3 (.4)	5 (.3)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2-1〉 생활근거지(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학년도별	구 분	도 내				도 외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기 타	계
'01		1381 (61.9)	245 (11.0)	224 (10.0)	184 (8.2)	2034 (91.9)	30 (1.3)	36 (1.6)	6 (0.3)	128 (5.5)	200 (8.7)
'02		1120 (58.1)	196 (10.2)	231 (12.2)	170 (8.8)	1717 (89.3)	51 (2.6)	10 (0.5)	5 (0.3)	146 (7.6)	212 (11.0)
'03		1007 (63.2)	212 (13.3)	171 (10.7)	105 (6.5)	1,495 (93.7)	15 (0.9)	15 (0.9)	8 (0.5)	61 (3.9)	99 (6.2)
'04		1095 (60.4)	176 (9.7)	177 (9.8)	133 (7.3)	1581 (87.2)	38 (2.1)	54 (3.0)	19 (1.0)	120 (6.9)	231 (13.0)

1-3. 입학 후 거주할 곳

신입생들이 입학 후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는 '본가'가 7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숙사' 11.8%, '자취' 10.5%, '친척 및 친지' 4.5%, '하숙'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본가' 66.4%→71.4%, '기숙사' 6.7%→11.8%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자취' 19.3%→10.5%, '하숙' 2.3%→1.4%, '친척 및 친지' 4.9%→4.5%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별 주거형태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숙사' 인 경우는 경상대, 생명대, 자연대, 사범대 순으로 타 대학생보다 높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이 12.9%(133명)로서 여학생의 10.3%(81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입학 후 거주하고 싶은 곳

〈단위: 명(%)〉

구분 거주할 곳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가	216 (78.8)	176 (77.2)	163 (54.5)	106 (72.6)	46 (63.0)	82 (73.9)	196 (65.6)	294 (81.0)	14 (73.7)	728 (70.7)	565 (72.2)	1293 (71.4)
친 척 및 친 지	16 (5.8)	10 (4.4)	15 (5.0)	6 (4.1)	4 (5.5)	2 (1.8)	12 (4.0)	16 (4.4)	1 (5.3)	41 (4.0)	41 (5.2)	82 (4.5)
자 취	21 (7.7)	21 (9.2)	37 (12.4)	13 (8.9)	6 (8.2)	13 (11.7)	42 (14.0)	37 (10.2)	1 (5.3)	102 (9.9)	89 (11.4)	191 (10.5)
하 숙	2 (.7)	6 (2.6)	6 (2.0)	1 (.7)			6 (2.0)	4 (1.1)		20 (1.9)	5 (.6)	25 (1.4)
기 숙 사	19 (6.9)	13 (5.7)	78 (26.1)	19 (13.0)	15 (20.5)	14 (12.6)	43 (14.4)	11 (3.0)	2 (10.5)	133 (12.9)	81 (10.3)	214 (11.8)
무 용 답		2 (.9)		1 (.7)	2 (2.7)			1 (.3)	1 (5.3)	5 (.5)	2 (.3)	7 (.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3-1〉 입학 후 거주하고 싶은 곳 (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분 학년도별	본 가	자 취	하 숙	기 숙 사	기 타
'01	1525 (68.4)	458 (20.5)	51 (2.3)	93 (4.2)	104 (4.6)
'02	1237 (64.1)	433 (22.4)	42 (2.2)	120 (6.2)	97 (5.0)
'03	1059 (66.4)	308 (19.3)	37 (2.3)	107 (6.7)	83 (5.2)
'04	1293 (71.4)	191 (10.5)	25 (1.4)	214 (11.8)	89 (4.9)

## 1-4.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

재수경험의 여부에는 신입생들의 89.6%가 재수하지 않았으며, 전년도보다는 1.8%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의 유형으로는 7.5%가 '1년 재수'를 하였으며, '2년 이상 재수'자는 2.2%이고, '검정고시' 입학생은 0.5%였다. 대학별로 보면 재수하지 않은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은 대학은 해양대로 96.4%, '1년 재수'는 사범대 16.4%이며, 재수의 경험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의과대로, 전체 응답자의 26.3%가 재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재수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

〈단위 : 명(%)〉

구분 경험유형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없 다	251 (91.6)	210 (92.1)	273 (91.3)	116 (79.5)	67 (91.8)	107 (96.4)	244 (81.6)	342 (94.2)	13 (68.4)	914 (88.8)	709 (90.5)	1623 (89.6)
1년 재수	20 (7.3)	10 (4.4)	20 (6.7)	24 (16.4)	6 (8.2)	1 (.9)	33 (11.0)	18 (5.0)	3 (15.8)	86 (8.4)	49 (6.3)	135 (7.5)
2년 재수	2 (.7)	2 (.9)	5 (1.7)	3 (2.1)		1 (.9)	7 (2.3)	1 (.3)	2 (10.5)	12 (1.2)	11 (1.4)	23 (1.3)
3년 이상 재수	1 (.4)	2 (.9)	1 (.3)	1 (.7)		1 (.9)	10 (3.3)			7 (.7)	9 (1.1)	16 (.9)
검정고시		2 (.9)		1 (.7)		1 (.9)	4 (1.3)	1 (.3)		6 (.6)	3 (.4)	9 (.5)
무 응답		2 (.9)		1 (.7)			1 (.3)	1 (.3)	1 (5.3)	4 (.4)	2 (.3)	6 (.3)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4-1)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없 다	1년 재수	2년 재수	기 타
'01	1955 (87.6)	220 (9.9)	26 (1.2)	30 (1.4)
'02	1724 (89.4)	142 (7.4)	32 (1.7)	31 (1.6)
'03	1457 (91.4)	92 (5.8)	11 (0.7)	34 (2.2)
'04	1623 (89.6)	135 (7.5)	23 (1.3)	31 (1.7)

1-5.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면, 보호자가 '아버지' 인 경우 84.9%, '어머니' 8.9%, '형·누나, 조부모, 친척, 기타' 3.4%로서 '아버지'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는 변동이 없었지만 '형·누나, 조부모, 친척'이 보호자인 경우는 감소(3.7% → 3.4%)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 명(%)〉

보호자와의 관계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237 (86.5)	192 (84.2)	258 (86.3)	129 (88.4)	59 (80.8)	96 (86.5)	262 (87.6)	290 (79.9)	16 (84.2)	860 (83.6)	679 (86.7)	1539 (84.9)
모		23 (8.4)	21 (9.2)	24 (8.0)	10 (6.8)	4 (5.5)	8 (7.2)	23 (7.7)	46 (12.7)	2 (10.5)	97 (9.4)	64 (8.2)	161 (8.9)
형, 누나		1 (.4)	2 (.9)		2 (1.4)	1 (1.4)	2 (1.8)	1 (.3)	5 (1.4)		7 (.7)	7 (.9)	14 (.8)
조 부모		3 (1.1)	1 (.4)	2 (.7)	1 (.7)	2 (2.7)	1 (.9)	2 (.7)	4 (1.1)		14 (1.4)	2 (.3)	16 (.9)
친 척			1 (.4)	1 (.3)		2 (2.7)			2 (.6)		5 (.5)	1 (.1)	6 (.3)
기 타			4 (1.8)	2 (.7)	3 (2.1)	2 (2.7)	3 (2.7)	6 (2.0)	5 (1.4)		19 (1.8)	6 (.8)	25 (1.4)
무 응 답		10 (3.6)	7 (3.1)	12 (4.0)	1 (.7)	3 (4.1)	1 (.9)	5 (1.7)	11 (3.0)	1 (5.3)	27 (2.6)	24 (3.1)	51 (2.8)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5-1〉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학년도별	구분	부	모	형·누나	조 부모	기 타
'01		1947 (87.3)	174 (7.8)	26 (1.2)	11 (0.5)	73 (3.3)
'02		1685 (87.4)	162 (8.4)	23 (1.2)	10 (0.5)	49 (2.5)
'03		1370 (85.9)	126 (7.9)	11 (0.7)	15 (0.9)	72 (4.5)
'04		1539 (84.9)	161 (8.9)	14 (0.8)	16 (0.9)	82 (4.5)

1-6.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양친 모두 살아 계신 경우'가 92.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만 살아계신 경우' 3.9%, '양친이 별거 중' 이거나 '이혼한 경우' 7.8%, '양친 모두 안 계신 경우'가 0.9%(17명)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92.6%의 학생이 양친 모두 살아계신다고 응답을 했지만 응답자의 84.8%만이 정상적인 가정형태를 보였으며, 각 대학중에서도 해양대는 가장 낮은 78.4%의 정상가정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학생 부모의 생존 여부

〈단위: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양친 모두 사망	4 (1.5)	4 (1.8)	2 (.7)	1 (.7)			2 (.7)	4 (1.1)		8 (.8)	9 (1.1)	17 (.9)
모 사 망	4 (1.5)	1 (.4)	2 (.7)	1 (.7)			1 (.3)	4 (1.1)		10 (1.0)	3 (.4)	13 (.7)
부 사 망	10 (3.6)	12 (5.3)	9 (3.0)	5 (3.4)	2 (2.7)	1 (.9)	8 (2.7)	22 (6.1)	2 (10.5)	45 (4.4)	26 (3.3)	71 (3.9)
양친 생존 동거	231 (84.3)	195 (85.5)	265 (88.6)	127 (87.0)	60 (82.2)	87 (78.4)	259 (86.6)	299 (82.4)	14 (73.7)	849 (82.5)	688 (87.9)	1537 (84.8)
양친 생존 별거중	7 (2.6)	5 (2.2)	6 (2.0)	3 (2.1)	3 (4.1)	7 (6.3)	7 (2.3)	13 (3.6)	1 (5.3)	38 (3.7)	14 (1.8)	52 (2.9)
양친 생존 이혼	13 (4.7)	8 (3.5)	13 (4.3)	9 (6.2)	6 (8.2)	11 (9.9)	14 (4.7)	14 (3.9)	1 (5.3)	56 (5.4)	33 (4.2)	89 (4.9)
모 른 다	3 (1.1)				1 (1.4)	2 (1.8)	2 (.7)	4 (1.1)		10 (1.0)	2 (.3)	12 (.7)
무 응 답	2 (.7)	3 (1.3)	2 (.7)		1 (1.4)	3 (2.7)	6 (2.0)	3 (.8)	1 (5.3)	13 (1.3)	8 (1.0)	21 (1.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6-1〉 학생 부모의 생존 여부(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부 사망	양친생존 동거	양친생존 별거중	양친생존 이혼	기 타
'01	118 (5.3)	1924 (86.2)	47 (2.1)	71 (3.2)	71 (3.6)
'02	95 (4.9)	1654 (85.7)	59 (3.1)	52 (2.7)	69 (3.6)
'03	68 (4.3)	1343 (84.3)	57 (3.6)	63 (4.0)	63 (3.9)
'04	71 (3.9)	1537 (84.8)	52 (2.9)	89 (4.9)	42 (3.5)

1-7. 학생 보호자의 학력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을 보면, '고중퇴~고졸' 47.1%, '대중퇴~대졸' 27%, '중중퇴~중졸' 10.7%, '대학원졸이상'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대중퇴~대학원졸' 인 경우는 남학생이 32.8%, 여학생이 35.0%로 여학생의 보호자 학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보호자의 학력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7〉 학생 보호자의 학력

〈단위 : 명(%)〉

구 분 보호자 학력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 학 ~ 고 학	4 (1.5)	4 (1.8)	2 (.7)	1 (.7)	1 (1.4)	4 (3.6)	7 (2.3)	7 (1.9)		23 (2.2)	7 (.9)	30 (1.7)
초 중퇴~초졸	12 (4.4)	8 (3.5)	10 (3.3)	7 (4.8)	3 (4.1)	3 (2.7)	16 (5.4)	28 (7.7)	2 (10.5)	57 (5.5)	32 (4.1)	89 (4.9)
중 중퇴~중졸	28 (10.2)	21 (9.2)	27 (9.0)	16 (11.0)	6 (8.2)	17 (15.3)	33 (11.0)	43 (11.8)	2 (10.5)	118 (11.5)	75 (9.6)	193 (10.7)
고 중퇴~고졸	132 (48.2)	129 (56.6)	149 (49.8)	66 (45.2)	40 (54.8)	47 (42.3)	124 (41.5)	159 (43.8)	7 (36.8)	464 (45.1)	389 (49.7)	853 (47.1)
대 중퇴~대졸	75 (27.4)	56 (24.6)	83 (27.8)	45 (30.8)	12 (16.4)	29 (26.1)	87 (29.1)	97 (26.7)	6 (31.6)	268 (26.0)	222 (28.4)	490 (27.0)
대학원졸이상	23 (8.4)	8 (3.5)	16 (5.4)	10 (6.8)	6 (8.2)	6 (5.4)	27 (9.0)	24 (6.6)	2 (10.5)	70 (6.8)	52 (6.6)	122 (6.7)
무 응 답		2 (.9)	12 (4.0)	1 (.7)	5 (6.8)	5 (4.5)	5 (1.7)	5 (1.4)		29 (2.8)	6 (.8)	35 (1.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7-1〉 학생 보호자의 학력(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무학~고학	초 중퇴 ~초졸	중 중퇴 ~중졸	고 중퇴 ~고졸	대 중퇴 ~대졸	대학원졸 이상	무 응 답
'01	47 (2.1)	173 (7.8)	268 (12.0)	1095 (49.1)	479 (21.5)	139 (6.2)	30 (1.3)
'02	51 (2.6)	95 (4.9)	204 (10.6)	991 (51.4)	442 (22.9)	121 (6.3)	25 (1.3)
'03	44 (2.8)	88 (5.5)	148 (9.3)	834 (52.3)	381 (23.9)	83 (5.2)	16 (1.0)
'04	30 (1.7)	89 (4.9)	193 (10.7)	853 (47.1)	490 (27.0)	122 (6.7)	35 (1.9)

## 1-8. 보호자의 직업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농·수·어·임업'이 1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14.1%, '사무 및 유사직'이 11.9%, '건설업'이 10.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7.5%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의 보호자는 '건설업', '음·식료품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이 많았고, 여학생의 보호자는 '농·수·어·임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사무 및 유사직', '기타 제조업'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 법정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는 '농·수·어·임업'의 직업을 가진 보호자가 많았고, 사범대는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직업을 가진 보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보호자의 직업

〈단위: 명(%)〉

보호자직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건설업		30 (10.9)	13 (5.7)	37 (12.4)	16 (11.0)	6 (8.2)	17 (15.3)	30 (10.0)	42 (11.6)	1 (5.3)	112 (10.9)	80 (10.2)	192 (10.6)
교육업		26 (9.5)	6 (2.6)	12 (4.0)	10 (6.8)	6 (8.2)	4 (3.6)	22 (7.4)	20 (5.5)	1 (5.3)	61 (5.9)	46 (5.9)	107 (5.9)
광업		1 (.4)							1 (.3)		1 (.1)	1 (.1)	2 (.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3 (12.0)	38 (16.7)	43 (14.4)	28 (19.2)	5 (6.8)	15 (13.5)	46 (15.4)	46 (12.7)	2 (10.5)	141 (13.7)	115 (14.7)	256 (14.1)
금융 및 보험업		4 (1.5)	10 (4.4)	12 (4.0)	7 (4.8)	3 (4.1)	1 (.9)	7 (2.3)	6 (1.7)		28 (2.7)	22 (2.8)	50 (2.8)
기타 제조업		7 (2.6)	8 (3.5)	12 (4.0)	3 (2.1)	3 (4.1)	4 (3.6)	11 (3.7)	14 (3.9)		30 (2.9)	32 (4.1)	62 (3.4)
농수림·임업및어업		49 (17.9)	46 (20.2)	51 (17.1)	15 (10.3)	21 (28.8)	20 (18.0)	54 (18.1)	83 (22.9)	4 (21.1)	188 (18.3)	155 (19.8)	343 (18.9)
연구·개발		2 (.7)	1 (.4)	2 (.7)							3 (.3)	3 (.4)	6 (.3)
목재산업			1 (.4)	1 (.3)	1 (.7)						5 (.5)	3 (.4)	8 (.4)
전산업		1 (.4)	1 (.4)	1 (.3)	1 (.7)						6 (.6)		6 (.3)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8 (2.9)	8 (3.5)	7 (2.3)	3 (2.1)	2 (2.7)	3 (2.7)	5 (1.7)	8 (2.2)	1 (5.3)	18 (1.7)	27 (3.4)	45 (2.5)

구분 보호자직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음·식료품 제조	7 (2.6)	5 (2.2)	8 (2.7)	3 (2.1)		3 (2.7)	7 (2.3)	7 (1.9)	3 (15.8)	28 (2.7)	15 (1.9)	43 (2.4)
사무 및 유사직	36 (13.1)	34 (14.9)	41 (13.7)	19 (13.0)	3 (4.1)	9 (8.1)	39 (13.0)	33 (9.1)	1 (5.3)	114 (11.1)	101 (12.9)	215 (11.9)
전기·가스·수도	2 (.7)	2 (.9)	6 (2.0)	4 (2.7)	1 (1.4)	3 (2.7)	3 (1.0)	4 (1.1)		12 (1.2)	13 (1.7)	25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7 (9.9)	16 (7.0)	19 (6.4)	12 (8.2)	4 (5.5)	7 (6.3)	19 (6.4)	30 (8.3)	2 (10.5)	79 (7.7)	57 (7.3)	136 (7.5)
전기·전자산업	1 (.4)	2 (.9)	5 (1.7)	2 (1.4)		1 (.9)	2 (.7)	5 (1.4)		10 (1.0)	8 (1.0)	18 (1.0)
화 학 산 업		1 (.4)		1 (.7)			1 (.3)			1 (.1)	2 (.3)	3 (.2)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 (6.6)	18 (7.9)	18 (6.0)	11 (7.5)	4 (5.5)	9 (8.1)	22 (7.4)	31 (8.5)		83 (8.1)	48 (6.1)	131 (7.2)
비금속광물 제조업	1 (.4)		1 (.3)					3 (.8)		4 (.4)	1 (.1)	5 (.3)
종이제조업				1 (.7)				1 (.3)		2 (.2)		2 (.1)
보건 및 사회복지업	4 (1.5)	6 (2.6)	1 (.3)	3 (2.1)		2 (1.8)	11 (3.7)	4 (1.1)	2 (10.5)	24 (2.3)	9 (1.1)	33 (1.8)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1 (.4)	1 (.4)	3 (1.0)	2 (1.4)		1 (.9)	5 (1.7)	6 (1.7)	1 (5.3)	13 (1.3)	7 (.9)	20 (1.1)
무 응 답	16 (5.8)	11 (4.8)	19 (6.4)	4 (2.7)	15 (20.5)	10 (9.0)	11 (3.7)	17 (4.7)	1 (5.3)	66 (6.4)	38 (4.9)	104 (5.7)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1-9. 가족의 월수입

신입생들의 53%가 가정의 월수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149만원' 8.9%, '300만원 이상' 8.7%, '150~199만원'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이 '51~99만원' 과 '50만원 이하' 인 학생은 4%로 전년의 9.6%보다 감소되었지만 '300만원 이상' 의 고소득 가족 역시 전년의 14.8%에서 8.7%로 감소되었다.

〈표 1-9〉 학생 가족의 월수입

〈단위 : 명(%)〉

구 분 가족의 월수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50만원이하	4 (1.5)	3 (1.3)	2 (.7)			2 (1.8)	5 (1.7)	6 (1.7)		14 (1.4)	8 (1.0)	22 (1.2)
51~99만원	11 (4.0)	5 (2.2)	6 (2.0)	5 (3.4)	3 (4.1)	1 (.9)	5 (1.7)	13 (3.6)	1 (5.3)	26 (2.5)	24 (3.1)	50 (2.8)
100~149만원	19 (6.9)	20 (8.8)	32 (10.7)	12 (8.2)	4 (5.5)	6 (5.4)	19 (6.4)	45 (12.4)	5 (26.3)	98 (9.5)	64 (8.2)	162 (8.9)
150~199만원	15 (5.5)	21 (9.2)	15 (5.0)	14 (9.6)	4 (5.5)	4 (3.6)	22 (7.4)	24 (6.6)	3 (15.8)	67 (6.5)	55 (7.0)	122 (6.7)
200~249만원	10 (3.6)	20 (8.8)	16 (5.4)	12 (8.2)	5 (6.8)	12 (10.8)	12 (4.0)	17 (4.7)		74 (7.2)	30 (3.8)	104 (5.7)
250~299만원	8 (2.9)	10 (4.4)	20 (6.7)	11 (7.5)	4 (5.5)	2 (1.8)	12 (4.0)	12 (3.3)		58 (5.6)	21 (2.7)	79 (4.4)
300만원이상	28 (10.2)	12 (5.3)	27 (9.0)	13 (8.9)	6 (8.2)	12 (10.8)	33 (11.0)	25 (6.9)	2 (10.5)	78 (7.6)	80 (10.2)	158 (8.7)
모 른 다	156 (56.9)	105 (46.1)	145 (48.5)	75 (51.4)	42 (57.5)	54 (48.6)	171 (57.2)	205 (56.5)	8 (42.1)	528 (51.3)	433 (55.3)	961 (53.0)
대답하고 싶지않다	18 (6.6)	28 (12.3)	23 (7.7)	4 (2.7)	3 (4.1)	11 (9.9)	19 (6.4)	13 (3.6)		67 (6.5)	52 (6.6)	119 (6.6)
무 응 답	5 (1.8)	4 (1.8)	13 (4.3)		2 (2.7)	7 (6.3)	1 (.3)	3 (.8)		19 (1.8)	16 (2.0)	35 (1.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9-1〉 학생 가족의 월수입(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50만원이하	51~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기 타
'01	89 (4.0)	289 (13.0)	540 (24.2)	373 (16.7)	571 (25.6)	369 (16.5)
'02	78 (4.0)	223 (11.6)	432 (22.4)	303 (15.7)	613 (31.8)	280 (14.5)
'03	48 (3.0)	106 (6.6)	621 (38.9)	377 (23.6)	236 (14.8)	206 (12.9)
'04	22 (1.2)	50 (2.8)	284 (15.6)	183 (10.1)	158 (8.7)	1115 (61.5)

1-10. 학생의 가정분위기

학생의 가정 분위기를 보면 '화목한 편이다'는 반응이 77.1%, '불화가 있는 편이다'는 반응이 4.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목한 편이다' (86.6%→77.1%)는 9.5% 감소하였고, '불화가 있는 편이다'라는 반응 역시 12.9%에서 4.3%로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의 가정이 82.9%로 남학생의 72.7%보다 화목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별로는 의과대 84.2%, 인문대 82.4%가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대는 14.4%가 불화가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표 1-10〉 학생의 가정분위기

〈단위 : 명(%)〉

구 분 가정분위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화목한 편이다	90 (32.8)	52 (22.8)	87 (29.1)	39 (26.7)	18 (24.7)	26 (23.4)	93 (31.1)	82 (22.6)	5 (26.3)	252 (24.5)	240 (30.7)	492 (27.2)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136 (49.6)	125 (54.8)	142 (47.5)	70 (47.9)	39 (53.4)	37 (33.3)	153 (51.2)	192 (52.9)	11 (57.9)	496 (48.2)	409 (52.2)	905 (49.9)
그저 그렇다	41 (15.0)	41 (18.0)	47 (15.7)	31 (21.2)	14 (19.2)	26 (23.4)	42 (14.0)	69 (19.0)	3 (15.8)	204 (19.8)	110 (14.0)	314 (17.3)
비교적 불화가 있는 편이다	6 (2.2)	4 (1.8)	11 (3.7)	5 (3.4)			10 (9.0)	6 (2.0)	8 (2.2)	38 (3.7)	12 (1.5)	50 (2.8)
매우 불화가 심한 편이다	1 (.4)	4 (1.8)	2 (.7)	1 (.7)			6 (5.4)	3 (1.0)	11 (3.0)	20 (1.9)	8 (1.0)	28 (1.5)
계		2 (.9)	10 (3.3)		2 (2.7)	6 (5.4)	2 (.7)	1 (.3)		19 (1.8)	4 (.5)	23 (1.3)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10-1〉 학생의 가정분위기(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불화가 심함	약간 불화가 있음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	기 타
'01	37 (1.7)	229 (10.3)	1363 (61.1)	585 (26.2)	17 (0.8)
'02	34 (1.8)	226 (11.7)	1112 (57.6)	548 (28.4)	9 (0.5)
'03	38 (2.4)	167 (10.5)	896 (56.2)	484 (30.4)	9 (0.6)
'04	28 (1.5)	50 (2.8)	905 (49.9)	492 (27.2)	337 (18.6)

1-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신입생들은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78.8%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고, 3.9%가 불편하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부모에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의과대(94.4%), 인문대(83.2%), 경상대(82.3%)의 순으로 나타났고, 편하지 못하다는 응답에는 해양대(8.1%), 사범대(5.5%), 자연대(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을 남녀 학생별로 보면 남학생은 74.4%, 여학생은 84.7%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남학생 5.1%, 여학생 2.5%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와의 친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단위 : 명(%)〉

느낌 정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 우 편 안	130 (47.4)	83 (36.4)	140 (46.8)	69 (47.3)	32 (43.8)	38 (34.2)	132 (44.1)	139 (38.3)	11 (57.9)	374 (36.3)	400 (51.1)	774 (42.7)
다 소 편 안	98 (35.8)	93 (40.8)	106 (35.5)	49 (33.6)	24 (32.9)	30 (27.0)	113 (37.8)	135 (37.2)	7 (36.8)	392 (38.1)	263 (33.6)	655 (36.1)
그 저 그 령 다	36 (13.1)	43 (18.9)	35 (11.7)	19 (13.0)	13 (17.8)	27 (24.3)	39 (13.0)	74 (20.4)	1 (5.3)	190 (18.5)	97 (12.4)	287 (15.8)
다 소 불 편	8 (2.9)	5 (2.2)	6 (2.0)	6 (4.1)	2 (2.7)	7 (6.3)	11 (3.7)	9 (2.5)		41 (4.0)	13 (1.7)	54 (3.0)
매 우 불 편	2 (.7)	2 (.9)	2 (.7)	2 (1.4)		2 (1.8)	2 (.7)	5 (1.4)		11 (1.1)	6 (.8)	17 (.9)
무 응 답		2 (.9)	10 (3.3)	1 (.7)	2 (2.7)	7 (6.3)	2 (.7)	1 (.3)		21 (2.0)	4 (.5)	25 (1.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1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매우 편안함	다소 편안함	그저 그렇다	다소 불편함	매우 불편함	기 타
'01	505 (22.6)	1262 (56.6)	350 (15.7)	63 (2.8)	34 (1.5)	17 (0.8)
'02	488 (25.3)	1050 (54.4)	289 (15.0)	57 (3.0)	29 (1.5)	16 (0.8)
'03	478 (30.0)	814 (51.1)	228 (14.3)	44 (2.8)	22 (1.4)	8 (0.5)
'04	774 (42.7)	655 (36.1)	287 (15.8)	54 (3.0)	17 (0.9)	25 (1.4)

1-12.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81.0%가 관심을 보인다고 대답하였고, 2.3%의 학생들은 관심이 적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의 84.8%가 부모가 관심을 보여준다고 대답하여, 남학생의 78.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표 1-11>의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2>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단위: 명(%)>

구 분 부모 관심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관심이 큼	138 (50.4)	107 (46.9)	131 (43.8)	68 (46.6)	29 (39.7)	38 (34.2)	137 (45.8)	123 (33.9)	14 (73.7)	396 (38.5)	389 (49.7)	785 (43.3)
약간 관심 있음	88 (32.1)	81 (35.5)	111 (37.1)	58 (39.7)	25 (34.2)	34 (30.6)	130 (43.5)	152 (41.9)	4 (21.1)	408 (39.7)	275 (35.1)	683 (37.7)
보 통	41 (15.0)	34 (14.9)	40 (13.4)	17 (11.6)	12 (16.4)	24 (21.6)	28 (9.4)	78 (21.5)	1 (5.3)	174 (16.9)	101 (12.9)	275 (15.2)
관 심 적 음	5 (1.8)	4 (1.8)	5 (1.7)	2 (1.4)	5 (6.8)	2 (1.8)		5 (1.4)		19 (1.8)	9 (1.1)	28 (1.5)
전혀 관심 없음	2 (.7)		2 (.7)				5 (4.5)	2 (.7)		10 (1.0)	4 (.5)	14 (.8)
무 응 답		2 (.9)	10 (3.3)	1 (.7)	2 (2.7)	8 (7.2)	2 (.7)	2 (.6)		22 (2.1)	5 (.6)	27 (1.5)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12-1>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학년도별	매우 관심이 큼	약간 관심이 큼	보통이다	관심이 적음	전혀 관심이 없음	기 타
'01	942 (42.2)	684 (30.7)	526 (23.6)	46 (2.1)	17 (0.8)	16 (0.7)
'02	842 (43.6)	588 (30.5)	420 (21.8)	50 (2.6)	19 (1.0)	10 (0.5)
'03	709 (44.5)	470 (29.5)	337 (21.1)	44 (2.8)	16 (1.0)	18 (1.1)
'04	785 (43.3)	683 (37.7)	275 (15.2)	28 (1.5)	14 (0.8)	27 (1.5)

## 1-13. 자신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신입생들은 자신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73.4%의 학생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19.5%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남녀학생의 비율로 보면 건강하다는 응답이 남학생 71%, 여학생 76.6%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남학생 5.8%, 여학생 4.3%로 여학생들이 스스로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별로는 의과대생(89.4%)이 가장 건강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반면에 해양대생(11.7%)이 가장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1-13〉 자신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단위: 명(%)〉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 우 건 강		89 (32.5)	67 (29.4)	114 (38.1)	59 (40.4)	26 (35.6)	30 (27.0)	109 (36.5)	112 (30.9)	7 (36.8)	331 (32.2)	282 (36.0)	613 (33.8)
비 교 적 건 강		111 (40.5)	99 (43.4)	109 (36.5)	56 (38.4)	28 (38.4)	29 (26.1)	128 (42.8)	147 (40.5)	10 (52.6)	399 (38.8)	318 (40.6)	717 (39.6)
보 통		60 (21.9)	44 (19.3)	58 (19.4)	24 (16.4)	12 (16.4)	31 (27.9)	44 (14.7)	81 (22.3)		216 (21.0)	138 (17.6)	354 (19.5)
비 교 적 건강하지 못함		6 (2.2)	7 (3.1)	6 (2.0)	5 (3.4)	3 (4.1)	8 (7.2)	7 (2.3)	14 (3.9)	2 (10.5)	33 (3.2)	25 (3.2)	58 (3.2)
매 우 건강하지 못함		5 (1.8)	10 (4.4)	2 (.7)	2 (1.4)	1 (1.4)	5 (4.5)	5 (1.7)	6 (1.7)		27 (2.6)	9 (1.1)	36 (2.0)
무 응 답		3 (1.1)	1 (.4)	10 (3.3)		3 (4.1)	8 (7.2)	6 (2.0)	3 (.8)		23 (2.2)	11 (1.4)	34 (1.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 1-14.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학생이 재학 중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호자' 8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본인' 6.8%, '교내장학금' 2.2%, '교외장학금'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별로는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남학생(83.5%)보다 여학생(90.3%)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학생 7.9%, 여학생 5.4%). 대학별로 보면 등록금이나 생활비 부담자가 '보호자'라는 응답은 인문대생이 높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생명대생, 교내 장학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과대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부담자	구분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보호자		248 (90.5)	193 (84.6)	267 (89.3)	126 (86.3)	56 (76.7)	78 (70.3)	258 (86.3)	323 (89.0)	17 (89.5)	859 (83.5)	707 (90.3)	1566 (86.4)
조부모		2 (.7)	7 (3.1)	1 (.3)	2 (1.4)	2 (2.7)	3 (2.7)	5 (1.7)	4 (1.1)		21 (2.0)	5 (.6)	26 (1.4)
형제		2 (.7)	1 (.4)	1 (.3)	1 (.7)		1 (.9)	2 (.7)	4 (1.1)		8 (.8)	4 (.5)	12 (.7)
친척		1 (.4)	1 (.4)	2 (.7)		1 (1.4)	2 (1.8)	1 (.3)	4 (1.1)		9 (.9)	3 (.4)	12 (.7)
본인		12 (4.4)	19 (8.3)	19 (6.4)	13 (8.9)	7 (9.6)	10 (9.0)	20 (6.7)	22 (6.1)	1 (5.3)	81 (7.9)	42 (5.4)	123 (6.8)
교내장학금		8 (2.9)	7 (3.1)	4 (1.3)	2 (1.4)	3 (4.1)	4 (3.6)	8 (2.7)	2 (.6)	1 (5.3)	23 (2.2)	16 (2.0)	39 (2.2)
교외장학금				1 (.3)	1 (.7)	1 (1.4)	2 (1.8)	1 (.3)	2 (.6)		8 (.8)		8 (.4)
무응답		1 (.4)		4 (1.3)	1 (.7)	3 (4.1)	11 (9.9)	4 (1.3)	2 (.6)		20 (1.9)	6 (.8)	26 (1.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1-14-1〉 재학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본인	보호자	장학금	기타
학년도별				
'01	146 (6.5)	1984 (88.9)	62 (2.7)	39 (1.8)
'02	137 (7.1)	1716 (89.0)	55 (2.8)	21 (1.2)
'03	126 (7.9)	1391 (87.3)	50 (3.1)	27 (1.7)
'04	123 (6.8)	1566 (86.4)	47 (2.6)	76 (4.2)

## 2. 대학생활

### 2-1. 대학 진학의 목적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목적을 보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39.6%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자신의 소질개발을 위해' 24.3%,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20.4%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의 목적과 각 대학을 비교해 보면 경상대생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인문대생은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의과대생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진학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의 비교에서는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서는 남학생이,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직업이나 교양습득, 소질 개발을 위한 진학 목적은 증가했지만, 주위의 권유나 배우자 선택,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대학 진학의 목적

〈단위 : 명(%)〉

구 분 진학목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81 (29.6)	94 (41.2)	146 (48.8)	68 (46.6)	26 (35.6)	46 (41.4)	115 (38.5)	135 (37.2)	7 (36.8)	430 (41.8)	288 (36.8)	718 (39.6)
교양 습득을 위해	14 (5.1)	14 (6.1)	8 (2.7)	3 (2.1)	5 (6.8)	4 (3.6)	15 (5.0)	5 (1.4)	1 (5.3)	41 (4.0)	28 (3.6)	69 (3.8)
주위의 권유	9 (3.3)	10 (4.4)	7 (2.3)	11 (7.5)	6 (8.2)	6 (5.4)	9 (3.0)	15 (4.1)	2 (10.5)	45 (4.4)	30 (3.8)	75 (4.1)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2 (.9)	1 (.3)	3 (2.1)	1 (1.4)	1 (.9)	1 (.3)	5 (1.4)		10 (1.0)	4 (.5)	14 (.8)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5 (1.8)	14 (6.1)	9 (3.0)	7 (4.8)	1 (1.4)	6 (5.4)	21 (7.0)	19 (5.2)		48 (4.7)	34 (4.3)	82 (4.5)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96 (35.0)	40 (17.5)	57 (19.1)	37 (25.3)	15 (20.5)	18 (16.2)	71 (23.7)	104 (28.7)	3 (15.8)	217 (21.1)	224 (28.6)	441 (24.3)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65 (23.7)	51 (22.4)	60 (20.1)	17 (11.6)	17 (23.3)	20 (18.0)	58 (19.4)	76 (20.9)	6 (31.6)	207 (20.1)	163 (20.8)	370 (20.4)
무 응 답	4 (1.5)	3 (1.3)	11 (3.7)		2 (2.7)	10 (9.0)	9 (3.0)	4 (1.1)		31 (3.0)	12 (1.5)	43 (2.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2-1-1〉 대학 진학의 목적(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교양 습득을 위해	주위의 권유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배우자 선택에 유리	기 타
'01	674 (30.2)	87 (3.9)	168 (7.5)	105 (4.7)	511 (22.9)	628 (28.1)	28 (1.3)	30 (1.3)
'02	661 (34.3)	92 (4.8)	123 (6.4)	125 (6.5)	398 (20.6)	483 (25.0)	36 (1.9)	11 (0.6)
'03	585 (36.7)	51 (3.2)	103 (6.5)	74 (4.6)	369 (23.1)	378 (23.7)	17 (1.1)	17 (1.1)
'04	718 (39.6)	69 (3.8)	75 (4.1)	82 (4.5)	441 (24.3)	370 (20.4)	14 (0.8)	43 (2.4)

2-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신입생이 대학 생활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공 공부' 32.7%(전년도 23.7%),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 25.3%(전년도 36.7%), '다양한 사회경험' 17.4%(전년도 23.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지식의 습득이나 서적 탐독은 4%, '진지한 이성교제' 2.2%, '학생운동/사회운동' 0.2%, '봉사활동' 0.1%의 낮은 반응을 보였다. 남녀 학생을 비교해 보면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진지한 이성교제', '각종 동아리 활동', '자격시험', '교양서적 탐독' 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구분 하고 싶은 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공 공 부	125 (45.6)	79 (34.6)	89 (29.8)	41 (28.1)	13 (17.8)	28 (25.2)	84 (28.1)	127 (35.0)	6 (31.6)	306 (29.7)	286 (36.5)	592 (32.7)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	63 (23.0)	59 (25.9)	84 (28.1)	40 (27.4)	19 (26.0)	19 (17.1)	97 (32.4)	73 (20.1)	5 (26.3)	274 (26.6)	185 (23.6)	459 (25.3)
진지한 이성교제	2 (.7)	6 (2.6)	5 (1.7)	2 (1.4)	1 (1.4)	5 (4.5)	6 (2.0)	12 (3.3)		31 (3.0)	8 (1.0)	39 (2.2)
교양지식의 습득	11 (4.0)	7 (3.1)	12 (4.0)	6 (4.1)	6 (8.2)	1 (.9)	12 (4.0)	9 (2.5)	2 (10.5)	28 (2.7)	38 (4.9)	66 (3.6)
각종 동아리활동	8 (2.9)	7 (3.1)	13 (4.3)	12 (8.2)	6 (8.2)	7 (6.3)	7 (2.3)	24 (6.6)	1 (5.3)	53 (5.2)	32 (4.1)	85 (4.7)
다양한 사회경험	36 (13.1)	38 (16.7)	71 (23.7)	32 (21.9)	12 (16.4)	16 (14.4)	42 (14.0)	65 (17.9)	4 (21.1)	162 (15.7)	154 (19.7)	316 (17.4)
학 생 운 동 사 회 운 동						2 (1.8)	2 (.7)			4 (.4)		4 (.2)
교양서적 탐독	1 (.4)	1 (.4)		1 (.7)			3 (1.0)	2 (.6)		6 (.6)	2 (.3)	8 (.4)
자격시험 준비	11 (4.0)	20 (8.8)	10 (3.3)	8 (5.5)	4 (5.5)	10 (9.0)	17 (5.7)	22 (6.1)	1 (5.3)	65 (6.3)	38 (4.9)	103 (5.7)
봉 사 활 동	1 (.4)					1 (.9)				1 (.1)	1 (.1)	2 (.1)
기 타	13 (4.7)	9 (3.9)	5 (1.7)	4 (2.7)	8 (11.0)	13 (11.7)	24 (8.0)	25 (6.9)		73 (7.1)	28 (3.6)	101 (5.6)
무 응 답	3 (1.1)	2 (.9)	10 (3.3)		4 (5.5)	9 (8.1)	5 (1.7)	4 (1.1)		26 (2.5)	11 (1.4)	37 (2.0)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2-2-1〉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폭 넓은 친구교제	이성교제	동아리활동	자격시험 준비	사회활동 참여	전공공부	기 타
'01	633 (28.4)	161 (7.2)	178 (8.0)	338 (15.2)	168 (7.5)	657 (29.4)	96 (4.3)
'02	530 (27.5)	156 (8.1)	130 (6.7)	246 (12.8)	200 (10.4)	600 (31.1)	66 (3.5)
'03	585 (36.7)	51 (3.2)	103 (6.5)	74 (4.6)	369 (23.1)	378 (23.7)	50 (3.2)
'04	459 (25.3)	39 (2.2)	85 (4.7)	103 (5.7)	316 (17.4)	592 (32.7)	218 (11.9)

2-3.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본 결과,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 하다는 응답이 47%,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기회를 포착' 한다는 응답이 32.5%로 전체 응답자 중 79.5%의 학생들이 해외여행이나 연수의 경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의 88%가, 남녀 학생의 비율로 보면 여학생의 89%가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희망직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기회를 포착	115 (42.0)	65 (28.5)	114 (38.1)	57 (39.0)	20 (27.4)	32 (28.8)	87 (29.1)	94 (25.9)	5 (26.3)	296 (28.8)	293 (37.4)	589 (32.5)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	126 (46.0)	116 (50.9)	135 (45.2)	67 (45.9)	32 (43.8)	42 (37.8)	149 (49.8)	173 (47.7)	11 (57.9)	447 (43.4)	404 (51.6)	851 (47.0)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음	29 (10.6)	46 (20.2)	37 (12.4)	19 (13.0)	18 (24.7)	25 (22.5)	52 (17.4)	89 (24.5)	2 (10.5)	244 (23.7)	73 (9.3)	317 (17.5)
사 치 이 며 별 의 미 없 음	1 (.4)		3 (1.0)	3 (2.1)	1 (1.4)	3 (2.7)	6 (2.0)	4 (1.1)	1 (5.3)	19 (1.8)	3 (.4)	22 (1.2)
무 응 답	3 (1.1)	1 (.4)	10 (3.3)		2 (2.7)	9 (8.1)	5 (1.7)	3 (.8)		23 (2.2)	10 (1.3)	33 (1.8)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2-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

대학 생활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장래 진로에 대한 방향 수립' 33.3%, '좋은 학점 취득' 27.2%, '시간 및 생활 관리'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해양대생과 자연대생을 제외한 전 대학의 학생들이 '장래 진로에 대한 방향 수립'을 예상 문제점으로 반응했고, 해양대생과 자연대생들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좋은 학점 취득'이라고 반응했다. '이성과 교제하기'는 남학생이 (남2.6%, 여0.6%) 높은 반응을 보여 더 적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2-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 명(%)〉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좋은 학점 취득	86 (31.4)	55 (24.1)	69 (23.1)	38 (26.0)	21 (28.8)	36 (32.4)	94 (31.4)	90 (24.8)	4 (21.1)	272 (26.4)	221 (28.2)	493 (27.2)
장래 진로에 대한 방향 수립	97 (35.4)	72 (31.6)	128 (42.8)	45 (30.8)	28 (38.4)	21 (18.9)	88 (29.4)	119 (32.8)	5 (26.3)	328 (31.9)	275 (35.1)	603 (33.3)
교수의 강의 따라가기	8 (2.9)	10 (4.4)	9 (3.0)	6 (4.1)	4 (5.5)	7 (6.3)	9 (3.0)	15 (4.1)	1 (5.3)	42 (4.1)	27 (3.4)	69 (3.8)
친구, 선·후배와의 대인관계 유지	19 (6.9)	28 (12.3)	17 (5.7)	12 (8.2)	6 (8.2)	6 (5.4)	19 (6.4)	43 (11.8)	2 (10.5)	90 (8.7)	62 (7.9)	152 (8.4)
시간 및 생활 관리	34 (12.4)	33 (14.5)	33 (11.0)	25 (17.1)	6 (8.2)	11 (9.9)	49 (16.4)	46 (12.7)	5 (26.3)	129 (12.5)	113 (14.4)	242 (13.4)
학비 및 생활비 마련	19 (6.9)	15 (6.6)	14 (4.7)	9 (6.2)	2 (2.7)	11 (9.9)	16 (5.4)	26 (7.2)		65 (6.3)	47 (6.0)	112 (6.2)
동아리 활동과 수업의 균형	4 (1.5)	6 (2.6)	6 (2.0)	4 (2.7)	3 (4.1)		3 (1.0)	4 (1.1)	2 (10.5)	17 (1.7)	15 (1.9)	32 (1.8)
이성과 교제하기	2 (.7)	3 (1.3)	2 (.7)	2 (1.4)	1 (1.4)	5 (4.5)	6 (2.0)	11 (3.0)		27 (2.6)	5 (.6)	32 (1.8)
어려운 점 없음	2 (.7)	5 (2.2)	10 (3.3)	4 (2.7)		5 (4.5)	10 (3.3)	6 (1.7)		34 (3.3)	8 (1.0)	42 (2.3)
무응답	3 (1.1)	1 (.4)	11 (3.7)	1 (.7)	2 (2.7)	9 (8.1)	5 (1.7)	3 (.8)		25 (2.4)	10 (1.3)	35 (1.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2-5. 기숙사 입사에 대한 희망 여부

재학 중 기숙사 입사에 대한 희망 여부에서 '입사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56.9%, '상황에 따라서' 또는 '꼭 입사하고 싶다'는 반응이 각각 18.2%와 11.8%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별로는 남학생 32.1%, 여학생 27.1%가 입사 의사를 밝혔고, 대학별로는 경상대생 46.9%, 생명대생 39.8%, 법정대생 33.8%, 자연대생 32.1%의 학생이 입사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2-5〉 기숙사 입사에 대한 희망 여부

〈단위: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꼭 입학하고 싶다	14 (5.1)	20 (8.8)	63 (21.1)	21 (14.4)	18 (24.7)	14 (12.6)	44 (14.7)	18 (5.0)	2 (10.5)	131 (12.7)	83 (10.6)	214 (11.8)
상황에 따라 입학	41 (15.0)	57 (25.0)	77 (25.8)	19 (13.0)	11 (15.1)	14 (12.6)	52 (17.4)	58 (16.0)		200 (19.4)	129 (16.5)	329 (18.2)
입사하지 않겠다	184 (67.2)	126 (55.3)	129 (43.1)	96 (65.8)	33 (45.2)	49 (44.1)	161 (53.8)	237 (65.3)	16 (84.2)	546 (53.1)	485 (61.9)	1031 (56.9)
잘 모르겠다	34 (12.4)	24 (10.5)	27 (9.0)	9 (6.2)	9 (12.3)	24 (21.6)	35 (11.7)	48 (13.2)	1 (5.3)	132 (12.8)	79 (10.1)	211 (11.6)
무 응 답	1 (.4)	1 (.4)	3 (1.0)	1 (.7)	2 (2.7)	10 (9.0)	7 (2.3)	2 (.6)		20 (1.9)	7 (.9)	27 (1.5)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 2-6.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학생이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82.9%가 원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15.6%의 학생이 관심 없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이 3.2% 감소한 것이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82.1%, 여학생이 84%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단위: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희망정도												
절실히 원한다	75 (27.4)	50 (21.9)	71 (23.7)	27 (18.5)	24 (32.9)	33 (29.7)	76 (25.4)	82 (22.6)	4 (21.1)	265 (25.8)	177 (22.6)	442 (24.4)
원 한다	152 (55.5)	135 (59.2)	176 (58.9)	104 (71.2)	33 (45.2)	52 (46.8)	179 (59.9)	216 (59.5)	13 (68.4)	579 (56.3)	481 (61.4)	1060 (58.5)
별로 관심없다	35 (12.8)	27 (11.8)	41 (13.7)	12 (8.2)	11 (15.1)	10 (9.0)	35 (11.7)	54 (14.9)	2 (10.5)	131 (12.7)	96 (12.3)	227 (12.5)
생각한 적 없다	12 (4.4)	16 (7.0)	6 (2.0)	2 (1.4)	2 (2.7)	6 (5.4)	4 (1.3)	9 (2.5)		34 (3.3)	23 (2.9)	57 (3.1)
무 응 답			5 (1.7)	1 (.7)	3 (4.1)	10 (9.0)	5 (1.7)	2 (.6)		20 (1.9)	6 (.8)	26 (1.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2-6-1〉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절실히 원함	원 함	별로 관심 없음	생각한 적이 없음	기 타
'01	402 (18.0)	1571 (70.4)	202 (9.1)	45 (2.0)	11 (0.5)
'02	281 (14.6)	1364 (70.7)	217 (11.2)	58 (3.0)	9 (0.5)
'03	235 (14.7)	1138 (71.4)	161 (10.1)	50 (3.1)	10 (0.6)
'04	442 (24.4)	1060 (58.5)	227 (12.5)	57 (3.1)	26 (1.4)

2-7.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용돈 마련'이 60.1%, '폭넓은 사회생활과 경험쌓기' 21.2%, '학비마련' 9.6%, '생계유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살펴 보면 '용돈 마련'은 사범대생, 의과대생, 자연대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폭넓은 사회생활과 경험쌓기'는 생명대생, 경상대생, 공과대생, 해양대생, 인문대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녀의 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폭넓은 사회생활과 경험쌓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여학생은 '용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넓은 사회 생활과 경험쌓기	60 (21.9)	43 (18.9)	68 (22.7)	28 (19.2)	18 (24.7)	25 (22.5)	57 (19.1)	82 (22.6)	4 (21.1)	243 (23.6)	142 (18.1)	385 (21.2)
용 돈 마 련	154 (56.2)	138 (60.5)	180 (60.2)	102 (69.9)	39 (53.4)	52 (46.8)	200 (66.9)	211 (58.1)	13 (68.4)	592 (57.5)	497 (63.5)	1089 (60.1)
학 비 마 련	32 (11.7)	23 (10.1)	27 (9.0)	11 (7.5)	2 (2.7)	14 (12.6)	18 (6.0)	45 (12.4)	2 (10.5)	99 (9.6)	75 (9.6)	174 (9.6)
생 계 유 지	9 (3.3)	7 (3.1)	11 (3.7)	1 (.7)	4 (5.5)	6 (5.4)	4 (1.3)	10 (2.8)		31 (3.0)	21 (2.7)	52 (2.9)
무 응 답	19 (6.9)	17 (7.5)	13 (4.3)	4 (2.7)	10 (13.7)	14 (12.6)	20 (6.7)	15 (4.1)		64 (6.2)	48 (6.1)	112 (6.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2-7-1〉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폭 넓은 사회생활	용돈 마련	학비 마련	생계 유지	기 타
'01	313 (14.0)	1451 (65.0)	352 (15.8)	15 (0.7)	100 (4.5)
'02	318 (16.5)	1190 (61.7)	327 (17.0)	20 (1.0)	74 (3.8)
'03	213 (13.4)	1023 (64.2)	259 (16.2)	25 (1.6)	74 (4.6)
'04	385 (21.2)	1089 (60.1)	174 (9.6)	52 (2.9)	112 (6.2)

2-8. 장학금의 필요 여부와 필요한 이유

장학금의 필요여부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 총당'을 위해서가 43.9%, '등록금 총당' 41%, '생활비 총당' 8.9%로 전체의 93.8%의 반응을 보여 재학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의과대생(100%), 인문대생(96.4%), 사범대생(95.2%), 공과대생(95%)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95.7%)이 남학생(92.3%)보다 더 장학금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8〉 장학금의 필요 여부와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필요 여부와 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필요 없다	4 (1.5)	10 (4.4)	11 (3.7)	6 (4.1)	2 (2.7)	6 (5.4)	15 (5.0)	14 (3.9)		47 (4.6)	21 (2.7)	68 (3.8)
등록금과 생활비 총당	115 (42.0)	98 (43.0)	128 (42.8)	48 (32.9)	32 (43.8)	47 (42.3)	135 (45.2)	186 (51.2)	6 (31.6)	483 (46.9)	312 (39.8)	795 (43.9)
생활비 총당	27 (9.9)	20 (8.8)	30 (10.0)	17 (11.6)	9 (12.3)	16 (14.4)	24 (8.0)	19 (5.2)		104 (10.1)	58 (7.4)	162 (8.9)
등록금 총당	122 (44.5)	97 (42.5)	123 (41.1)	74 (50.7)	22 (30.1)	32 (28.8)	120 (40.1)	140 (38.6)	13 (68.4)	363 (35.3)	380 (48.5)	743 (41.0)
무응답	6 (2.2)	3 (1.3)	7 (2.3)	1 (.7)	8 (11.0)	10 (9.0)	5 (1.7)	4 (1.1)		32 (3.1)	12 (1.5)	44 (2.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2-8-1〉 장학금의 필요 여부와 이유(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필요 없음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생활비 충당을 위해	등록금 충당을 위해	기 타
'01	157 (7.0)	815 (36.5)	230 (10.3)	979 (43.9)	50 (2.2)
'02	176 (9.1)	699 (36.2)	225 (11.7)	796 (41.3)	33 (1.7)
'03	141 (8.8)	639 (40.1)	157 (9.8)	636 (39.9)	21 (1.3)
'04	68 (3.8)	795 (43.9)	162 (8.9)	743 (41.0)	44 (2.4)

2-9. 본교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신입생의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는 50.6%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32.1%의 학생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15.1%가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녀별로는 여학생 54.1%, 남학생 47.9%로 여학생이 더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대학별로는 의과대생이 57.9%로 가장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생명대생은 19.2%로 가장 높은 불만을 보였다.

〈표 2-9〉 본교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만족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	9 (3.3)	4 (1.8)	16 (5.4)	5 (3.4)	6 (8.2)	9 (8.1)	21 (7.0)	11 (3.0)		52 (5.1)	29 (3.7)	81 (4.5)
비교적 만족	132 (48.2)	115 (50.4)	138 (46.2)	72 (49.3)	32 (43.8)	41 (36.9)	144 (48.2)	150 (41.3)	11 (57.9)	440 (42.8)	395 (50.4)	835 (46.1)
그저 그렇다	89 (32.5)	62 (27.2)	90 (30.1)	42 (28.8)	17 (23.3)	34 (30.6)	91 (30.4)	152 (41.9)	5 (26.3)	349 (33.9)	233 (29.8)	582 (32.1)
비교적 불만족	29 (10.6)	32 (14.0)	32 (10.7)	19 (13.0)	11 (15.1)	8 (7.2)	28 (9.4)	28 (7.7)	3 (15.8)	108 (10.5)	82 (10.5)	190 (10.5)
매우 불만족	13 (4.7)	10 (4.4)	18 (6.0)	7 (4.8)	3 (4.1)	7 (6.3)	11 (3.7)	15 (4.1)		50 (4.9)	34 (4.3)	84 (4.6)
무 응 답	2 (.7)	5 (2.2)	5 (1.7)	1 (.7)	4 (5.5)	12 (10.8)	4 (1.3)	7 (1.9)		30 (2.9)	10 (1.3)	40 (2.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2-10. 장래 갖고 싶은 직종

학생들이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으로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 51.5%, '전공과 관련된 직종' 42.8%의 순으로 현재의 전공과 연계된 직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의과대생이 100% 전공과 연계된 직종을 원했고, 사범대생이 99.1%, 법정대생 97%, 공과대생 96.4%, 인문대 96%의 순이며, 남녀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94.3%, 여학생 94.2%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2-10〉 장래 갖고 싶은 직종

〈단위: 명(%)〉

희망직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과 무관한 직종	7 (3.5)	4 (2.4)	17 (8.7)	1 (.9)	8 (18.6)	6 (11.8)	13 (6.4)	8 (3.6)		31 (5.2)	33 (5.5)	64 (5.3)
전공과 관련된 직종	104 (52.3)	83 (50.0)	80 (40.8)	54 (48.2)	15 (34.9)	12 (23.5)	89 (43.6)	75 (34.1)	4 (28.6)	255 (42.5)	261 (43.1)	516 (42.8)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	87 (43.7)	78 (47.0)	99 (50.5)	57 (50.9)	20 (46.5)	31 (60.8)	101 (49.5)	137 (62.3)	10 (71.4)	311 (51.8)	309 (51.1)	620 (51.5)
무응답	1 (.5)	1 (.6)				2 (3.9)	1 (.5)			3 (.5)	2 (.3)	5 (.4)
계	199 (100.0)	166 (100.0)	196 (100.0)	112 (100.0)	43 (100.0)	51 (100.0)	204 (100.0)	220 (100.0)	14 (100.0)	600 (100.0)	605 (100.0)	1205 (100.0)

2-11.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학생이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를 보면 '취미 분야' 50.9%(전년도 50.9%), '스포츠 분야' 21.9%(전년도 25.4%), '교양·학술분야' 7.5%(전년도 4.8%)의 순으로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9.5%(전년도 9.7%)로 전년도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별로 보면 사범대생은 '교양·학술분야'에, 생명대생은 '스포츠 분야', 공과대생은 '취미 분야', 의과대생은 '종교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별로는 남학생은 '스포츠 분야'에, 여학생은 '취미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단위: 명(%)〉

생각 정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양·학술 분야	23 (8.4)	17 (7.5)	26 (8.7)	16 (11.0)	4 (5.5)	7 (6.3)	26 (8.7)	16 (4.4)		72 (7.0)	63 (8.0)	135 (7.5)
스포츠 분야	42 (15.3)	48 (21.1)	77 (25.8)	26 (17.8)	23 (31.5)	31 (27.9)	71 (23.7)	77 (21.2)	1 (5.3)	296 (28.8)	100 (12.8)	396 (21.9)

동아리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취미 분야	149 (54.4)	112 (49.1)	135 (45.2)	74 (50.7)	29 (39.7)	46 (41.4)	142 (47.5)	221 (60.9)	15 (78.9)	485 (47.1)	438 (55.9)	923 (50.9)
종교 분야	11 (4.0)	4 (1.8)	5 (1.7)	1 (.7)	1 (1.4)	4 (3.6)	11 (3.7)	3 (.8)	1 (5.3)	21 (2.0)	20 (2.6)	41 (2.3)
지역 및 사회문제 분야	6 (2.2)	11 (4.8)	10 (3.3)	1 (.7)		1 (.9)	8 (2.7)	1 (.3)		22 (2.1)	16 (2.0)	38 (2.1)
봉사 분야	14 (5.1)	13 (5.7)	14 (4.7)	9 (6.2)	2 (2.7)	2 (1.8)	11 (3.7)	8 (2.2)	1 (5.3)	25 (2.4)	49 (6.3)	74 (4.1)
하고 싶지 않다	28 (10.2)	21 (9.2)	27 (9.0)	18 (12.3)	10 (13.7)	10 (9.0)	24 (8.0)	34 (9.4)	1 (5.3)	86 (8.4)	87 (11.1)	173 (9.5)
무응답	1 (.4)	2 (.9)	5 (1.7)	1 (.7)	4 (5.5)	10 (9.0)	6 (2.0)	3 (.8)		22 (2.1)	10 (1.3)	32 (1.8)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2-11-1〉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최근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교양·학술 분야	스포츠 분야	취미 분야	봉사 분야	하고 싶지 않음	기 타
'01	186 (8.3)	470 (21.0)	1148 (51.5)	119 (5.3)	215 (9.6)	93 (4.1)
'02	136 (7.1)	426 (22.0)	1002 (51.9)	78 (4.0)	197 (10.2)	90 (4.6)
'03	76 (4.8)	404 (25.4)	812 (50.9)	69 (4.3)	155 (9.7)	78 (4.9)
'04	135 (7.5)	396 (21.9)	923 (50.9)	74 (4.1)	173 (9.5)	111 (6.2)

2-12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신입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폭 넓은 인간관계 형성' 30.6%, '적성개발과 취미생활' 18.9%, '다양한 사회경험'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적성개발과 취미생활'에 더 높은 반응을 보였고(남 20.95%, 여16.2%), '다양한 사회경험'은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남13.6%, 여23.4%). '폭 넓은 인간관계 형성'은 의과대생이 42.1%로 경상대생 33.1%, 공과대생 32.9%, 인문대생과 자연대생 30.8%, 사범대생 30.5%와 비교해 높은 반응을 보였고, '다양한 사회경험'은 사범대생 21.6%, 인문대생 19.5%, 경상대생과 의과대생 18.4%, 법정대생 18%, 공과대생 17.9%, 자연대생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2〉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이유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아발견과 인격성숙	40 (7.3)	41 (9.0)	37 (6.2)	18 (6.2)	11 (7.5)	23 (10.4)	47 (7.9)	32 (4.4)	2 (5.3)	158 (7.7)	93 (5.9)	251 (6.9)
교양지식 획득	16 (2.9)	20 (4.4)	23 (3.8)	8 (2.7)	4 (2.7)	7 (3.2)	21 (3.5)	25 (3.4)	1 (2.6)	79 (3.8)	46 (2.9)	125 (3.4)
사회봉사 참가	9 (1.6)	13 (2.9)	12 (2.0)	5 (1.7)	4 (2.7)	12 (5.4)	15 (2.5)	8 (1.1)	2 (5.3)	46 (2.2)	34 (2.2)	80 (2.2)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169 (30.8)	128 (28.1)	198 (33.1)	89 (30.5)	38 (26.0)	49 (22.1)	184 (30.8)	239 (32.9)	16 (42.1)	629 (30.6)	481 (30.7)	1110 (30.6)
다양한 사회경험	107 (19.5)	82 (18.0)	110 (18.4)	63 (21.6)	19 (13.0)	24 (10.8)	104 (17.4)	130 (17.9)	7 (18.4)	279 (13.6)	367 (23.4)	646 (17.8)
주위의 권유	5 (.9)	3 (.7)	3 (.5)	2 (.7)		5 (2.3)	4 (.7)	10 (1.4)		25 (1.2)	7 (.4)	32 (.9)
적성개발과 취미생활	104 (19.0)	88 (19.3)	112 (18.7)	50 (17.1)	24 (16.4)	38 (17.1)	109 (18.2)	152 (20.9)	8 (21.1)	431 (20.9)	254 (16.2)	685 (18.9)
무응답	98 (17.9)	81 (17.8)	103 (17.2)	57 (19.5)	46 (31.5)	64 (28.8)	114 (19.1)	130 (17.9)	2 (5.3)	411 (20.0)	284 (18.1)	695 (19.2)
계	548 (100.0)	456 (100.0)	598 (100.0)	292 (100.0)	146 (100.0)	222 (100.0)	598 (100.0)	726 (100.0)	38 (100.0)	2058 (100.0)	1566 (100.0)	3624 (100.0)

2-13. 동아리활동을 원하지 않는 이유

신입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 12.8%, '불필요' 10.5%, '학업 방해' 9.9%, '다른 학내 활동을 위해' 4.0%, '가입시기를 놓쳐서' 3.2%, '주위의 반대' 2.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57.4%로 전체 응답 학생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동아리활동을 원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이유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입시기를 놓쳐서	11 (2.0)	17 (3.7)	20 (3.3)	11 (3.8)	6 (4.1)	5 (2.3)	19 (3.2)	27 (3.7)	1 (2.6)	81 (3.9)	36 (2.3)	117 (3.2)
다른 학내활동을 위해	18 (3.3)	17 (3.7)	25 (4.2)	10 (3.4)	4 (2.7)	13 (5.9)	19 (3.2)	38 (5.2)		91 (4.4)	53 (3.4)	144 (4.0)
학업에 방해	68 (12.4)	50 (11.0)	60 (10.0)	36 (12.3)	7 (4.8)	15 (6.8)	50 (8.4)	68 (9.4)	4 (10.5)	174 (8.5)	184 (11.7)	358 (9.9)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	65 (11.9)	60 (13.2)	92 (15.4)	32 (11.0)	6 (4.1)	26 (11.7)	75 (12.5)	104 (14.3)	4 (10.5)	254 (12.3)	210 (13.4)	464 (12.8)
불필요	58 (10.6)	52 (11.4)	58 (9.7)	32 (11.0)	14 (9.6)	16 (7.2)	56 (9.4)	90 (12.4)	5 (13.2)	215 (10.4)	166 (10.6)	381 (10.5)
주위의 반대	13 (2.4)	10 (2.2)	6 (1.0)	7 (2.4)	6 (4.1)	7 (3.2)	18 (3.0)	13 (1.8)		48 (2.3)	32 (2.0)	80 (2.2)

구분 이유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응답	315 (57.5)	250 (54.8)	337 (56.4)	164 (56.2)	103 (70.5)	140 (63.1)	361 (60.4)	386 (53.2)	24 (63.2)	1195 (58.1)	885 (56.5)	2080 (57.4)
계	548 (100.0)	456 (100.0)	598 (100.0)	292 (100.0)	146 (100.0)	222 (100.0)	598 (100.0)	726 (100.0)	38 (100.0)	2058 (100.0)	1566 (100.0)	3624 (100.0)

2-1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18.9%,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15.3%, '좋은 인간관계 형성' 14.9%,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 12.8%, '화목한 가정생활' 12.4%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과 법정대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을, 법정대생과 경상대생, 생명대생, 해양대생, 공과대생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의과대생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을, 여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중요점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93 (17.0)	81 (17.8)	129 (21.6)	49 (16.8)	26 (17.8)	36 (16.2)	111 (18.6)	153 (21.1)	7 (18.4)	411 (20.0)	274 (17.5)	685 (18.9)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	72 (13.1)	59 (12.9)	68 (11.4)	49 (16.8)	17 (11.6)	24 (10.8)	80 (13.4)	89 (12.3)	7 (18.4)	287 (13.9)	178 (11.4)	465 (12.8)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	33 (6.0)	38 (8.3)	27 (4.5)	9 (3.1)	11 (7.5)	10 (4.5)	34 (5.7)	26 (3.6)	4 (10.5)	95 (4.6)	97 (6.2)	192 (5.3)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생활	6 (1.1)	7 (1.5)	12 (2.0)	5 (1.7)	5 (3.4)	5 (2.3)	11 (1.8)	17 (2.3)	1 (2.6)	43 (2.1)	26 (1.7)	69 (1.9)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96 (17.5)	70 (15.4)	109 (18.2)	44 (15.1)	12 (8.2)	18 (8.1)	107 (17.9)	93 (12.8)	7 (18.4)	236 (11.5)	320 (20.4)	556 (15.3)
화목한 가정생활	71 (13.0)	51 (11.2)	78 (13.0)	40 (13.7)	20 (13.7)	26 (11.7)	62 (10.4)	101 (13.9)	2 (5.3)	272 (13.2)	179 (11.4)	451 (12.4)
건강한 삶	44 (8.0)	31 (6.8)	30 (5.0)	37 (12.7)	14 (9.6)	21 (9.5)	50 (8.4)	65 (9.0)	3 (7.9)	168 (8.2)	127 (8.1)	295 (8.1)
종교적인 삶	13 (2.4)	3 (.7)	3 (.5)	1 (.3)	1 (.7)	5 (2.3)	9 (1.5)	10 (1.4)	1 (2.6)	28 (1.4)	18 (1.1)	46 (1.3)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2 (.4)	9 (2.0)	3 (.5)	1 (.3)	1 (.7)	3 (1.4)	3 (.5)	5 (.7)		16 (.8)	11 (.7)	27 (.7)
좋은 인간관계 형성	74 (13.5)	76 (16.7)	97 (16.2)	47 (16.1)	10 (6.8)	24 (10.8)	82 (13.7)	125 (17.2)	6 (15.8)	302 (14.7)	239 (15.3)	541 (14.9)
무응답	44 (8.0)	31 (6.8)	42 (7.0)	10 (3.4)	29 (19.9)	50 (22.5)	49 (8.2)	42 (5.8)		200 (9.7)	97 (6.2)	297 (8.2)
계	548 (100.0)	456 (100.0)	598 (100.0)	292 (100.0)	146 (100.0)	222 (100.0)	598 (100.0)	726 (100.0)	38 (100.0)	2058 (100.0)	1566 (100.0)	3624 (100.0)

2-15. 대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

대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배양'이라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양을 갖춘 지성인' 30.0%,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 10.8%, '첨단지식 습득하여 사회 선도'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경상대생(54.2%), 법정대생(50.9%), 인문대생(48.2%), 공과대생(46.35%) 생명대생(43.8%), 자연대생(42.8%), 해양대생(37.8%)은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배양'을, 의과대생(63.2%), 사범대생(40.4%)은 '교양을 갖춘 지성인'을 우선순위로 응답했다.

〈표 2-15〉 대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

〈단위 : 명(%)〉

구분 중요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양을 갖춘 지성인	95 (34.7)	57 (25.0)	80 (26.8)	59 (40.4)	19 (26.0)	28 (25.2)	101 (33.8)	93 (25.6)	12 (63.2)	302 (29.3)	242 (30.9)	544 (30.0)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배양	132 (48.2)	116 (50.9)	162 (54.2)	56 (38.4)	32 (43.8)	42 (37.8)	128 (42.8)	168 (46.3)	6 (31.6)	467 (45.4)	375 (47.9)	842 (46.5)
첨단지식 습득하여 사회 선도	8 (2.9)	10 (4.4)	13 (4.3)	3 (2.1)	7 (9.6)	12 (10.8)	21 (7.0)	33 (9.1)		63 (6.1)	44 (5.6)	107 (5.9)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	25 (9.1)	34 (14.9)	30 (10.0)	15 (10.3)	5 (6.8)	12 (10.8)	27 (9.0)	46 (12.7)	1 (5.3)	112 (10.9)	83 (10.6)	195 (10.8)
많은 지식으로 다음 세대 교육	11 (4.0)	5 (2.2)	5 (1.7)	12 (8.2)	5 (6.8)	4 (3.6)	13 (4.3)	15 (4.1)		50 (4.9)	20 (2.6)	70 (3.9)
무 응답	3 (1.1)	6 (2.6)	9 (3.0)	1 (.7)	5 (6.8)	13 (11.7)	9 (3.0)	8 (2.2)		35 (3.4)	19 (2.4)	54 (3.0)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3-1. 입학전 '제주대'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제주대'에 대한 인식은 '보통' 47.6%, '좋았다'는 응답이 38.3%, '좋지 않았다'는 응답이 13.4%로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생명대생이 56.2%, 자연대생이 44.2%, 인문대생이 41.2%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남녀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입학전 '제주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인식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주 좋았음	19 (6.9)	16 (7.0)	23 (7.7)	7 (4.8)	7 (9.6)	14 (12.6)	25 (8.4)	24 (6.6)		82 (8.0)	53 (6.8)	135 (7.5)
다소 좋았음	94 (34.3)	54 (23.7)	94 (31.4)	33 (22.6)	34 (46.6)	28 (25.2)	107 (35.8)	108 (29.8)	6 (31.6)	319 (31.0)	239 (30.5)	558 (30.8)
보 통	125 (45.6)	123 (53.9)	144 (48.2)	78 (53.4)	26 (35.6)	46 (41.4)	124 (41.5)	186 (51.2)	10 (52.6)	480 (46.6)	382 (48.8)	862 (47.6)
별로 좋지 않았음	30 (10.9)	29 (12.7)	29 (9.7)	26 (17.8)	3 (4.1)	11 (9.9)	38 (12.7)	26 (7.2)	3 (15.8)	105 (10.2)	90 (11.5)	195 (10.8)
전혀 좋지 않았음	6 (2.2)	5 (2.2)	6 (2.0)	2 (1.4)	3 (4.1)	4 (3.6)	5 (1.7)	16 (4.4)		29 (2.8)	18 (2.3)	47 (2.6)
무 응 답		1 (.4)	3 (1.0)			8 (7.2)		3 (.8)		14 (1.4)	1 (.1)	15 (.8)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2 입학 전 '제주대'에 대한 인지도

본교를 지원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잘 모르고 지원' 한 경우가 58.7%, '전혀 모르고 지원' 한 경우 29.0%, '대강 알고 지원' 한 경우 9.6%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알고 지원한 학생(11.3%)보다 모르고 지원한 학생(87.8%)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에는 '대강 알고 지원' 한 학생이 59.8%인데 비해서 올해는 9.6%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3-2〉 입학 전 '제주대'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혀 모르고 지원	87 (31.8)	62 (27.2)	74 (24.7)	61 (41.8)	21 (28.8)	31 (27.9)	92 (30.8)	87 (24.0)	11 (57.9)	301 (29.3)	225 (28.7)	526 (29.0)
잘 모르고 지원	164 (59.9)	141 (61.8)	185 (61.9)	70 (47.9)	38 (52.1)	55 (49.5)	167 (55.9)	237 (65.3)	7 (36.8)	587 (57.0)	477 (60.9)	1064 (58.7)
대강 알고 지원	19 (6.9)	21 (9.2)	32 (10.7)	15 (10.3)	11 (15.1)	12 (10.8)	35 (11.7)	28 (7.7)	1 (5.3)	103 (10.0)	71 (9.1)	174 (9.6)
충분히 알고 지원	4 (1.5)	3 (1.3)	5 (1.7)		2 (2.7)	5 (4.5)	5 (1.7)	7 (1.9)		24 (2.3)	7 (.9)	31 (1.7)
무 응 답		1 (.4)	3 (1.0)		1 (1.4)	8 (7.2)		4 (1.1)		14 (1.4)	3 (.4)	17 (.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3-2-1〉 입학 전 '제주대'에 대한 인지도(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학년도별	전혀 모르고 지원함	잘 모르고 지원함	대강 알고 지원함	충분히 알고 지원함	기 타
'01	114 (5.1)	736 (33.0)	1269 (56.9)	102 (4.6)	10 (0.4)
'02	115 (6.0)	548 (28.4)	1135 (58.8)	118 (6.1)	13 (0.7)
'03	71 (4.5)	448 (28.1)	953 (59.8)	110 (6.9)	12 (0.8)
'04	526 (29.0)	1064 (58.7)	174 (9.6)	31 (1.7)	17 (0.9)

3-3. 제주대학교 지원 시 고려한 주된 요인

학생들이 제주대학교를 지원할 때 고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성적에 의한 합격 가능성(28%)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적성과 취향' 24.5%, '지역적 인접성' 17.2%, '국제자유도시 소재 대학으로서의 취업전망' 12.2%, '경제적인 면'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로 보면 '성적(합격가능성)'은 의과대생이, '자신의 적성과 취향'은 인문대생이, '국제자유도시 소재 대학으로서의 취업전망'은 경상대생이 높은 반응을 보였고,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제주대학교를 지원할 때 고려한 주된 요인으로 '성적(합격가능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제주대학교 지원 시 고려한 주된 요인 <단위: 명(%)>

구 분 고려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국제자유도시 소재 대학으로서의 취업전망	22 (8.0)	22 (9.6)	83 (27.8)	14 (9.6)	8 (11.0)	14 (12.6)	28 (9.4)	28 (7.7)	2 (10.5)	140 (13.6)	81 (10.3)	221 (12.2)
자 신 의 적 성과 취 향	85 (31.0)	42 (18.4)	70 (23.4)	34 (23.3)	23 (31.5)	21 (18.9)	84 (28.1)	83 (22.9)	2 (10.5)	230 (22.4)	214 (27.3)	444 (24.5)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 활동		3 (1.3)	4 (1.3)		4 (5.5)	5 (4.5)	10 (3.3)	4 (1.1)	1 (5.3)	20 (1.9)	11 (1.4)	31 (1.7)
장 학 제도 및 기 숙 사 시 설	11 (4.0)	5 (2.2)	3 (1.0)	2 (1.4)	3 (4.1)	2 (1.8)	9 (3.0)	6 (1.7)		19 (1.8)	22 (2.8)	41 (2.3)
성 격 적 (합 격 가 능 성)	72 (26.3)	64 (28.1)	71 (23.7)	47 (32.2)	14 (19.2)	21 (18.9)	93 (31.1)	118 (32.5)	7 (36.8)	282 (27.4)	225 (28.7)	507 (28.0)
지 역 적 인 접 성	51 (18.6)	54 (23.7)	38 (12.7)	31 (21.2)	8 (11.0)	11 (9.9)	40 (13.4)	73 (20.1)	6 (31.6)	177 (17.2)	135 (17.2)	312 (17.2)
경 제 적 인 면	22 (8.0)	18 (7.9)	22 (7.4)	12 (8.2)	3 (4.1)	11 (9.9)	6 (2.0)	22 (6.1)	1 (5.3)	66 (6.4)	51 (6.5)	117 (6.5)
기 타	10 (3.6)	19 (8.3)	5 (1.7)	6 (4.1)	10 (13.7)	18 (16.2)	27 (9.0)	26 (7.2)		80 (7.8)	41 (5.2)	121 (6.7)
무 응 답	1 (.4)	1 (.4)	3 (1.0)			8 (7.2)	2 (.7)	3 (.8)		15 (1.5)	3 (.4)	18 (1.0)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4. 제주대학교 지원 시 정보 수집 경로

본교 지원 시 정보의 수집 경로를 보면 '본교 입시 홈페이지' 에서 38.5%, '진학지도 담당교사' 19.4%, '신입생 모집요강 등 입시 홍보물' 15.7%, '선배, 친척 및 가족 등'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진학지도 담당교사', '선배, 친척 및 가족 등', '본교 대학 설명회', '입시학원 자료' 에서, 여학생은 '본교 입시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요강 등 입시 홍보물' 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제주대학교 지원 시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명(%)〉

고려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교 입 시 홈 페 이 지	135 (49.3)	75 (32.9)	119 (39.8)	61 (41.8)	21 (28.8)	35 (31.5)	125 (41.8)	118 (32.5)	9 (47.4)	359 (34.9)	339 (43.3)	698 (38.5)
신입생 모집요강 등 입시 홍보물	54 (19.7)	47 (20.6)	45 (15.1)	13 (8.9)	12 (16.4)	14 (12.6)	36 (12.0)	60 (16.5)	4 (21.1)	142 (13.8)	143 (18.3)	285 (15.7)
진 학 지 도 담 당 교 사	33 (12.0)	46 (20.2)	51 (17.1)	40 (27.4)	19 (26.0)	23 (20.7)	57 (19.1)	81 (22.3)	2 (10.5)	229 (22.3)	123 (15.7)	352 (19.4)
본교 대학설명회	2 (.7)	13 (5.7)	6 (2.0)	4 (2.7)	5 (6.8)	2 (1.8)	11 (3.7)	9 (2.5)	2 (10.5)	32 (3.1)	22 (2.8)	54 (3.0)
선배, 친척 및 가 족 등	29 (10.6)	29 (12.7)	47 (15.7)	17 (11.6)	9 (12.3)	16 (14.4)	37 (12.4)	62 (17.1)	1 (5.3)	145 (14.1)	102 (13.0)	247 (13.6)
입시학원 자료	7 (2.6)	4 (1.8)	9 (3.0)	5 (3.4)	1 (1.4)		7 (2.3)	5 (1.4)	1 (5.3)	26 (2.5)	13 (1.7)	39 (2.2)
기 타	14 (5.1)	13 (5.7)	19 (6.4)	6 (4.1)	6 (8.2)	13 (11.7)	26 (8.7)	26 (7.2)		83 (8.1)	40 (5.1)	123 (6.8)
무 응 답		1 (.4)	3 (1.0)			8 (7.2)		2 (.6)		13 (1.3)	1 (.1)	14 (.8)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3-4-1〉 제주대학교 지원 시 정보의 수집 경로(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선배, 친척 및 가족 등	진학지도 담당교사	메 스 콤	입시홍보물	본교 대학설명회	입시학원 자료	기 타
'01	1146 (51.3)	267 (12.0)	94 (4.2)	402 (18.0)	34 (1.5)	123 (5.5)	165 (7.4)
'02	1404 (52.1)	284 (14.7)	125 (6.5)	247 (12.8)	24 (1.2)	100 (5.2)	145 (7.5)
'03	841 (52.8)	251 (15.7)	84 (5.3)	178 (11.2)	75 (4.7)	46 (2.9)	119 (7.5)
'04	247 (13.6)	352 (19.4)		285 (15.7)	54 (3.0)	39 (2.2)	698 (38.5)

3-5. 본교 고등학교 방문 또는 대학 설명회가 진학준비에 미치는 영향

본교의 대학설명회가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저 그렇다' 40.4%, '다소 도움' 28.8%,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1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33.7%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23.7%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생명대 45.2%, 법정대 40.8%, 의과대 36.9%, 자연대 36.8%, 공과대 3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사범대 29.5%, 경상대 29.1%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표 3-5> 본교 고등학교 방문 또는 대학설명회가 진학준비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 분 도움 정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크게 도움	8 (2.9)	10 (4.4)	10 (3.3)	3 (2.1)	7 (9.6)	14 (12.6)	24 (8.0)	11 (3.0)	1 (5.3)	56 (5.4)	32 (4.1)	88 (4.9)
다소 도움	79 (28.8)	83 (36.4)	71 (23.7)	40 (27.4)	26 (35.6)	18 (16.2)	86 (28.8)	113 (31.1)	6 (31.6)	281 (27.3)	241 (30.8)	522 (28.8)
그저 그렇다	122 (44.5)	81 (35.5)	117 (39.1)	58 (39.7)	28 (38.4)	46 (41.4)	115 (38.5)	157 (43.3)	8 (42.1)	405 (39.4)	327 (41.8)	732 (40.4)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28 (10.2)	23 (10.1)	24 (8.0)	21 (14.4)	5 (6.8)	9 (8.1)	32 (10.7)	29 (8.0)	3 (15.8)	88 (8.6)	86 (11.0)	174 (9.6)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33 (12.0)	27 (11.8)	63 (21.1)	22 (15.1)	6 (8.2)	15 (13.5)	38 (12.7)	50 (13.8)	1 (5.3)	171 (16.6)	84 (10.7)	255 (14.1)
무 응 답	4 (1.5)	4 (1.8)	14 (4.7)	2 (1.4)	1 (1.4)	9 (8.1)	4 (1.3)	3 (.8)		28 (2.7)	13 (1.7)	41 (2.3)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6. 11~12월 중 본교 홍보방송에 대한 반응도

11~12월중에 본교에서 하는 홍보방송에 대한 반응에는 '그저 그렇다' 38.4%, '시청해 본적이 없다' 33.1%, '반응이 좋은 편' 21.5%, '매우 반응이 좋음' 3.8%, '별로 좋은 편 아님'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39.1%가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시청해 본적 없음' 34.4%, '반응이 좋은 편' 23.4%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생명대생의 39.7%, 자연대생 31.7%가 반응이 좋다고 대답하였고, 해양대생 3.6%, 법정대생 3.5%, 공과대생 2.8%, 사범대생 2.7%, 인문대생 2.6%가 별로 좋은편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표 3-6〉 11~12월 중 본교 홍보방송에 대한 반응도

〈단위: 명(%)〉

구 분 홍보방법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반응이 좋음	10 (3.6)	11 (4.8)	7 (2.3)	5 (3.4)	9 (12.3)	9 (8.1)	13 (4.3)	4 (1.1)		49 (4.8)	19 (2.4)	68 (3.8)
반응이 좋은 편	54 (19.7)	47 (20.6)	68 (22.7)	25 (17.1)	20 (27.4)	22 (19.8)	82 (27.4)	68 (18.7)	3 (15.8)	206 (20.0)	183 (23.4)	389 (21.5)
그저 그렇다	103 (37.6)	92 (40.4)	110 (36.8)	49 (33.6)	28 (38.4)	40 (36.0)	98 (32.8)	161 (44.4)	14 (73.7)	402 (39.1)	293 (37.4)	695 (38.4)
별로 좋은 편 아님	7 (2.6)	8 (3.5)	7 (2.3)	4 (2.7)	1 (1.4)	4 (3.6)	5 (1.7)	10 (2.8)		28 (2.7)	18 (2.3)	46 (2.5)
시청해 본 적 없음	100 (36.5)	69 (30.3)	104 (34.8)	63 (43.2)	15 (20.5)	27 (24.3)	101 (33.8)	118 (32.5)	2 (10.5)	330 (32.1)	269 (34.4)	599 (33.1)
무 응 답		1 (.4)	3 (1.0)			9 (8.1)		2 (.6)		14 (1.4)	1 (.1)	15 (.8)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7. 타 시·도 본교 진학예정 학생들에 대한 홍보 방법

타 시·도에서 본교에 진학예정인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에는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 30.8%, '타 시·도 고교 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 22.7%, '입시요강 등 입학안내 홍보물의 배부처 및 배부수량 확대' 13.7%, '기숙사 입사 우선권 부여 및 학생 숙소 정보 제공' 9.5%의 순으로 나타났고 홍보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7%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자연대, 공과대는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생명대, 해양대, 의과대는 '타 시·도 고교 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타 시·도 본교 진학예정 학생들에 대한 홍보 방법

〈단위: 명(%)〉

구 분 홍보방법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타 시·도 고교 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	61 (22.3)	49 (21.5)	76 (25.4)	35 (24.0)	23 (31.5)	22 (19.8)	72 (24.1)	66 (18.2)	7 (36.8)	217 (21.1)	194 (24.8)	411 (22.7)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	96 (35.0)	84 (36.8)	86 (28.8)	46 (31.5)	17 (23.3)	19 (17.1)	88 (29.4)	118 (32.5)	5 (26.3)	288 (28.0)	271 (34.6)	559 (30.8)
입시요강 등 입학안내 홍보물의 배부처 및 배부수량 확대	40 (14.6)	28 (12.3)	49 (16.4)	22 (15.1)	6 (8.2)	14 (12.6)	42 (14.0)	45 (12.4)	2 (10.5)	137 (13.3)	111 (14.2)	248 (13.7)
기숙사 입사 우선권 부여 및 학생 숙소 정보 제공	23 (8.4)	19 (8.3)	33 (11.0)	20 (13.7)	4 (5.5)	9 (8.1)	29 (9.7)	32 (8.8)	3 (15.8)	106 (10.3)	66 (8.4)	172 (9.5)
모 르 겠 다	50 (18.2)	46 (20.2)	53 (17.7)	22 (15.1)	23 (31.5)	35 (31.5)	65 (21.7)	98 (27.0)	2 (10.5)	264 (25.7)	130 (16.6)	394 (21.7)
무 응 답	4 (1.5)	2 (.9)	2 (.7)	1 (.7)		12 (10.8)	3 (1.0)	4 (1.1)		17 (1.7)	11 (1.4)	28 (1.5)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8. 본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

본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2.7%(전년도 62.1%),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42.2%(전년도 35%), 부끄럽다는 응답이 3.7%(전년도 2.2%)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자랑스럽다는 반응과 부끄럽다는 반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학생은 '01학년도→23.2%, '02학년도→27%, '03학년도→35%, '04학년도→42.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39.3%)보다 여학생(45.9%)이 더 자랑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본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

〈단위: 명(%)〉

자긍심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자랑스럽다		13 (4.7)	14 (6.1)	17 (5.7)	7 (4.8)	6 (8.2)	10 (9.0)	20 (6.7)	13 (3.6)	1 (5.3)	60 (5.8)	41 (5.2)	101 (5.6)
자랑스러운 편임		101 (36.9)	79 (34.6)	125 (41.8)	63 (43.2)	27 (37.0)	27 (24.3)	124 (41.5)	109 (30.0)	9 (47.4)	345 (33.5)	319 (40.7)	664 (36.6)
그저 그렇다		154 (56.2)	126 (55.3)	145 (48.5)	67 (45.9)	35 (47.9)	56 (50.5)	146 (48.8)	217 (59.8)	9 (47.4)	555 (53.9)	400 (51.1)	955 (52.7)
부끄러운 편임		5 (1.8)	9 (3.9)	6 (2.0)	5 (3.4)	2 (2.7)	4 (3.6)	3 (1.0)	10 (2.8)		30 (2.9)	14 (1.8)	44 (2.4)
매우 부끄럽다		1 (.4)		4 (1.3)	2 (1.4)	2 (2.7)	2 (1.8)	3 (1.0)	9 (2.5)		18 (1.7)	5 (.6)	23 (1.3)
무응답				2 (.7)	2 (1.4)	1 (1.4)	12 (10.8)	3 (1.0)	5 (1.4)		21 (2.0)	4 (.5)	25 (1.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3-8-1〉 본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분	자랑스러움	그저 그렇다	부끄러움	기 타
'01	518 (23.2)	1630 (73.1)	72 (3.2)	11 (0.5)
'02	520 (27.0)	1334 (69.2)	66 (3.4)	9 (0.5)
'03	558 (35.0)	990 (62.1)	35 (2.2)	11 (0.7)
'04	765 (42.2)	955 (52.7)	67 (2.7)	25 (1.4)

3-9. 지망학부(과)를 선택한 시기

신입생들이 지망학부(과)를 선택한 시기를 보면 '고교3~입학원서 접수 전' 43.7%(전년도 42.7%),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42.0%(전년도 41.1%), '고교1~2학년말' 10.3%(전년도 11.4%), '중학교 또는 그 이전' 2.8%(전년도 3.5%)의 순으로 이는 지망학부(과)를 일찍 선택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압박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과 법정대생, 경상대생, 해양대생, 공과대생, 의과대생은 '고교3~입학원서 접수 전'에, 사범대생과 생명대생, 자연대생은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지망학부(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고교3~입학원서 접수 전'에, 여학생은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지망학부(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지망학부(과)를 선택한 시기

〈단위: 명(%)〉

구분 선택시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 학 원 서 접 수 기 간 중	106 (38.7)	96 (42.1)	122 (40.8)	66 (45.2)	42 (57.5)	44 (39.6)	127 (42.5)	151 (41.6)	7 (36.8)	416 (40.4)	345 (44.1)	761 (42.0)
고교 3~입학원서 접 수 전	114 (41.6)	112 (49.1)	133 (44.5)	58 (39.7)	26 (35.6)	47 (42.3)	126 (42.1)	166 (45.7)	9 (47.4)	466 (45.3)	325 (41.5)	791 (43.7)
고교 1~2학년말	45 (16.4)	16 (7.0)	32 (10.7)	18 (12.3)	4 (5.5)	6 (5.4)	27 (9.0)	35 (9.6)	3 (15.8)	102 (9.9)	84 (10.7)	186 (10.3)
중 학교 또는 그 이 전	9 (3.3)	3 (1.3)	9 (3.0)	4 (2.7)		1 (.9)	17 (5.7)	7 (1.9)		26 (2.5)	24 (3.1)	50 (2.8)
무 응 답		1 (.4)	3 (1.0)		1 (1.4)	13 (11.7)	2 (.7)	4 (1.1)		19 (1.8)	5 (.6)	24 (1.3)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3-9-1〉 지망학부(과)를 선택한 시기(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분 학년도별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	고교 1~2학년말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기 타
'01	1004 (45.0)	875 (39.2)	229 (10.3)	103 (4.6)	20 (0.9)
'02	821 (42.6)	770 (39.9)	217 (11.2)	94 (4.9)	27 (1.4)
'03	655 (41.1)	681 (42.7)	181 (11.4)	55 (3.5)	22 (1.4)
'04	761 (42.0)	791 (43.7)	186 (10.3)	50 (2.8)	24 (1.3)

3-10.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 학과군)에 대한 적합도

신입생들이 입학한 학과나 학부, 학과군에 대한 적합도에는 '적성과 취향에 적합' 43.2%, '그저 그렇다' 31.5%, '적성과 취향에 아주 적합' 11.5%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적합하지 않아서 전과나 복수 전공, 휴학을 할 계획인 학생도 1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학생 58.2%가 모집단위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응답했고(남학생 51.8%), 대학별로는 사범대생 70.6%, 의과대생 63.2%, 인문대생 63.1%, 자연대생 62.2%가 적합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3-10〉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 학과군)에 대한 적합도

〈단위: 명(%)〉

구분 적합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성과 취향에 아주 적합	39 (14.2)	19 (8.3)	37 (12.4)	21 (14.4)	8 (11.0)	4 (3.6)	53 (17.7)	26 (7.2)	1 (5.3)	120 (11.7)	88 (11.2)	208 (11.5)
적성과 취향에 적합	134 (48.9)	114 (50.0)	125 (41.8)	82 (56.2)	22 (30.1)	20 (18.0)	133 (44.5)	141 (38.8)	11 (57.9)	414 (40.2)	368 (47.0)	782 (43.2)
그저 그렇다	72 (26.3)	72 (31.6)	93 (31.1)	30 (20.5)	25 (34.2)	53 (47.7)	76 (25.4)	143 (39.4)	6 (31.6)	357 (34.7)	213 (27.2)	570 (31.5)
부적합해서 2-3학년 진급시 전과할 계획	20 (7.3)	12 (5.3)	26 (8.7)	7 (4.8)	8 (11.0)	15 (13.5)	29 (9.7)	36 (9.9)	1 (5.3)	74 (7.2)	80 (10.2)	154 (8.5)
부적합해서 적성에 맞는 학과를 복수전공 이수할 계획	7 (2.6)	11 (4.8)	7 (2.3)	4 (2.7)	6 (8.2)	3 (2.7)	3 (1.0)	9 (2.5)		23 (2.2)	27 (3.4)	50 (2.8)
휴학 후 입대 또는 재수할 계획	2 (.7)		7 (2.3)	1 (.7)	3 (4.1)	4 (3.6)	3 (1.0)	6 (1.7)		22 (2.1)	4 (.5)	26 (1.4)
무응답			4 (1.3)	1 (.7)	1 (1.4)	12 (10.8)	2 (.7)	2 (.6)		19 (1.8)	3 (.4)	22 (1.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11. 타 학과로의 전과에 대한 인지도

입학 후 타 학과로의 전과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6%, '잘 알고 있다' 23.1%, '잘 모른다' 15.9%, '전혀 모른다' 5.1%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의 82.7%가 타 학과로의 전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73.9%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타 학과로의 전과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알고 있다	59 (21.5)	54 (23.7)	72 (24.1)	41 (28.1)	23 (31.5)	26 (23.4)	66 (22.1)	73 (20.1)	5 (26.3)	231 (22.4)	188 (24.0)	419 (23.1)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	157 (57.3)	140 (61.4)	163 (54.5)	93 (63.7)	31 (42.5)	43 (38.7)	152 (50.8)	199 (54.8)	12 (63.2)	530 (51.5)	460 (58.7)	990 (54.6)
잘 모른다	43 (15.7)	27 (11.8)	50 (16.7)	8 (5.5)	13 (17.8)	20 (18.0)	60 (20.1)	66 (18.2)	2 (10.5)	186 (18.1)	103 (13.2)	289 (15.9)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혀 모 른 다	15 (5.5)	7 (3.1)	12 (4.0)	4 (2.7)	3 (4.1)	10 (9.0)	19 (6.4)	23 (6.3)		64 (6.2)	29 (3.7)	93 (5.1)
무 응 답			2 (.7)		3 (4.1)	12 (10.8)	2 (.7)	2 (.6)		18 (1.7)	3 (.4)	21 (1.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12. 복수전공에 대한 인지도

복수전공에 대한 인지도에는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 52.9%, '잘 모른다' 27.2%, '잘 알고 있다' 12.4%, '전혀 모른다' 5.4%로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38.9%, 여학생의 24.1%가 복수전공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사범대생(78.8%), 의과대생(73.7%), 경상대생(72.6%), 인문대생(70.5%)이 복수전공에 대하여 대충이라도 알고 있고, 해양대생(48.6%), 공과대생(46.0%), 생명대생(39.7%)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복수전공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선택 시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알고 있다	32 (11.7)	21 (9.2)	34 (11.4)	33 (22.6)	13 (17.8)	12 (10.8)	45 (15.1)	33 (9.1)	2 (10.5)	120 (11.7)	105 (13.4)	225 (12.4)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	161 (58.8)	135 (59.2)	183 (61.2)	82 (56.2)	29 (39.7)	31 (27.9)	167 (55.9)	158 (43.5)	12 (63.2)	480 (46.6)	478 (61.0)	958 (52.9)
잘 모른다	69 (25.2)	51 (22.4)	71 (23.7)	27 (18.5)	24 (32.9)	42 (37.8)	69 (23.1)	134 (36.9)	5 (26.3)	322 (31.3)	170 (21.7)	492 (27.2)
전 혀 모 른 다	11 (4.0)	10 (4.4)	8 (2.7)	4 (2.7)	5 (6.8)	12 (10.8)	14 (4.7)	33 (9.1)		78 (7.6)	19 (2.4)	97 (5.4)
무 응 답	1 (.4)	11 (4.8)	3 (1.0)		2 (2.7)	14 (12.6)	4 (1.3)	5 (1.4)		29 (2.8)	11 (1.4)	40 (2.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13.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을 알아본 결과 '사범대' 33.3%, '인문대' 20.2%, '경상대' 16.4%, '공과대' 7.5%, '법정대' 7.0%, '자연대' 5.8%, '해양대' 1.5%, '생명대' 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사범대', '경상대', '인문대', '공과대' 를, 여학생은 '사범대', '인문

대, '경상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사범대(전년도 16.6%)', '인문대(전년도 13.7%)', '경상대(전년도 10.2%)'의 선호 순서는 그대로이지만 비율면에서는 올해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년도에는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을 미리 계획하지 못한 학생이 39.2%로 매우 높았지만 올해는 7.0%로 자신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

〈단위:명(%)〉

구분 단과대학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인 문 대	58 (21.2)	39 (17.1)	82 (27.4)	21 (14.4)	13 (17.8)	14 (12.6)	54 (18.1)	81 (22.3)	4 (21.1)	171 (16.6)	195 (24.9)	366 (20.2)
법 정 대	26 (9.5)	15 (6.6)	35 (11.7)	3 (2.1)	5 (6.8)	13 (11.7)	13 (4.3)	16 (4.4)	1 (5.3)	75 (7.3)	52 (6.6)	127 (7.0)
경 상 대	34 (12.4)	51 (22.4)	51 (17.1)	5 (3.4)	11 (15.1)	22 (19.8)	48 (16.1)	74 (20.4)	1 (5.3)	178 (17.3)	119 (15.2)	297 (16.4)
사 범 대	121 (44.2)	94 (41.2)	99 (33.1)	98 (67.1)	12 (16.4)	12 (10.8)	75 (25.1)	84 (23.1)	9 (47.4)	293 (28.5)	311 (39.7)	604 (33.3)
농 생 대	3 (1.1)	3 (1.3)	3 (1.0)	1 (.7)	7 (9.6)	1 (.9)	3 (1.0)	1 (.3)		14 (1.4)	8 (1.0)	22 (1.2)
해 양 대		3 (1.3)	5 (1.7)		1 (1.4)	10 (9.0)	3 (1.0)	6 (1.7)		27 (2.6)	1 (.1)	28 (1.5)
자 연 대	4 (1.5)	3 (1.3)	2 (.7)	7 (4.8)	10 (13.7)	5 (4.5)	41 (13.7)	33 (9.1)	1 (5.3)	78 (7.6)	28 (3.6)	106 (5.8)
공 과 대	11 (4.0)	3 (1.3)	12 (4.0)	6 (4.1)	7 (9.6)	16 (14.4)	38 (12.7)	42 (11.6)	1 (5.3)	105 (10.2)	31 (4.0)	136 (7.5)
무 응 답	17 (6.2)	17 (7.5)	10 (3.3)	5 (3.4)	7 (9.6)	18 (16.2)	24 (8.0)	26 (7.2)	2 (10.5)	88 (8.6)	38 (4.9)	126 (7.0)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3-14.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에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29.5%, '전공의 학문적 보완' 26.6%,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 22.1%로 나타났고, 적은 비율이지만 '전공이 취업에도움이 안되어서' 7.1%, '전공이 적성과 부적합' 6.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모든 항목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대학별로는 인문대생, 법정대생, 생명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 공과대생이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복수전공을 원하고 있고, 경상대생, 사범대생, 의과대생은 '전공이 적성과 부적합'한 이유로 복수전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

〈단위 : 명(%)〉

이유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이 적성과 부적합	14 (5.1)	6 (2.6)	19 (6.4)	8 (5.5)	7 (9.6)	13 (11.7)	25 (8.4)	27 (7.4)	1 (5.3)	60 (5.8)	60 (7.7)	120 (6.6)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	28 (10.2)	12 (5.3)	17 (5.7)	7 (4.8)	9 (12.3)	8 (7.2)	28 (9.4)	19 (5.2)		67 (6.5)	61 (7.8)	128 (7.1)
전공의 학문적 보완	77 (28.1)	64 (28.1)	102 (34.1)	52 (35.6)	14 (19.2)	12 (10.8)	70 (23.4)	84 (23.1)	7 (36.8)	273 (26.5)	209 (26.7)	482 (26.6)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	56 (20.4)	50 (21.9)	61 (20.4)	28 (19.2)	17 (23.3)	27 (24.3)	60 (20.1)	97 (26.7)	5 (26.3)	230 (22.4)	171 (21.8)	401 (22.1)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80 (29.2)	75 (32.9)	88 (29.4)	45 (30.8)	20 (27.4)	31 (27.9)	84 (28.1)	107 (29.5)	4 (21.1)	304 (29.5)	230 (29.4)	534 (29.5)
무응답	19 (6.9)	21 (9.2)	12 (4.0)	6 (4.1)	6 (8.2)	20 (18.0)	32 (10.7)	29 (8.0)	2 (10.5)	95 (9.2)	52 (6.6)	147 (8.1)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4.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4-1. 교수에 기대하는 점

학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은 '해박한 지식 전달' 18.7%, '이해와 관심' 18.5%, '높은 학점' 17.5%,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 견지' 10.3%, '취업 확대' 9.5%, '훌륭한 인생관 전수' 9.2%, '많은 접촉의 기회'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인문대생, 해양대생은 '높은 학점'을, 법정대생, 경상대생은 '해박한 지식 전달'을, 공과대생, 사범대생, 자연대생,은 '이해와 관심'을 기대하였고, 생명대생은 '자애롭고 품위있는 태도 견지'와 '이해와 관심'을, 의과대생은 '많은 접촉의 기회'와 '이해와 관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은 '많은 접촉의 기회'와 '훌륭한 인생관 전수', '이해와 관심'을 기대한 반면 여학생은 '해박한 지식 전달', '연구하는 모습', '높은 학점', '취업 확대'를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교수에 기대하는 점

〈단위 : 명(%)〉

기대사항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해박한 지식 전달	56 (20.4)	46 (20.2)	58 (19.4)	28 (19.2)	11 (15.1)	15 (13.5)	54 (18.1)	67 (18.5)	3 (15.8)	191 (18.6)	147 (18.8)	338 (18.7)
많은 접촉의 기회	18 (6.6)	20 (8.8)	18 (6.0)	8 (5.5)	7 (9.6)	9 (8.1)	24 (8.0)	35 (9.6)	4 (21.1)	100 (9.7)	43 (5.5)	143 (7.9)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 견지	38 (13.9)	24 (10.5)	27 (9.0)	19 (13.0)	13 (17.8)	4 (3.6)	24 (8.0)	36 (9.9)	2 (10.5)	95 (9.2)	92 (11.7)	187 (10.3)
연구하는 모습	9 (3.3)	12 (5.3)	16 (5.4)	2 (1.4)	5 (6.8)	4 (3.6)	17 (5.7)	12 (3.3)	2 (10.5)	36 (3.5)	43 (5.5)	79 (4.4)

구분 기대사항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훌륭한 인생관 전 수	21 (7.7)	32 (14.0)	35 (11.7)	16 (11.0)	8 (11.0)	9 (8.1)	22 (7.4)	21 (5.8)	2 (10.5)	95 (9.2)	71 (9.1)	166 (9.2)
이해와 관심	40 (14.6)	28 (12.3)	45 (15.1)	31 (21.2)	13 (17.8)	17 (15.3)	63 (21.1)	94 (25.9)	4 (21.1)	212 (20.6)	123 (15.7)	335 (18.5)
높은 학점	63 (23.0)	34 (14.9)	49 (16.4)	25 (17.1)	9 (12.3)	25 (22.5)	61 (20.4)	50 (13.8)	1 (5.3)	162 (15.7)	155 (19.8)	317 (17.5)
취업 확대	22 (8.0)	20 (8.8)	42 (14.0)	13 (8.9)	5 (6.8)	9 (8.1)	23 (7.7)	37 (10.2)	1 (5.3)	90 (8.7)	82 (10.5)	172 (9.5)
활발한 사회활동	6 (2.2)	3 (1.3)	7 (2.3)	3 (2.1)	1 (1.4)	5 (4.5)	5 (1.7)	5 (1.4)		19 (1.8)	16 (2.0)	35 (1.9)
무응답	1 (.4)	9 (3.9)	2 (.7)	1 (.7)	1 (1.4)	14 (12.6)	6 (2.0)	6 (1.7)		29 (2.8)	11 (1.4)	40 (2.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4-2 원하는 강의 방법

학생들의 36.0%가 '강의 중심'의 강의 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실습중심' 20.3%, '토의 중심' 18.9%, '사이버수업' 4.7%, '발표 중심'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 법정대생, 경상대생, 사범대생, 생명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은 '강의중심'을 선호하는 반면, 공과대생과 의과대생은 '실험·실습중심'을 선호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강의 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원하는 강의 방법

〈단위: 명(%)〉

구분 강의방법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강의 중심	114 (41.6)	94 (41.2)	124 (41.5)	64 (43.8)	24 (32.9)	26 (23.4)	98 (32.8)	105 (28.9)	4 (21.1)	346 (33.6)	307 (39.2)	653 (36.0)
발표 중심	7 (2.6)	7 (3.1)	16 (5.4)	3 (2.1)	1 (1.4)	2 (1.8)	4 (1.3)	12 (3.3)		34 (3.3)	18 (2.3)	52 (2.9)
토의 중심	55 (20.1)	58 (25.4)	79 (26.4)	41 (28.1)	8 (11.0)	13 (11.7)	41 (13.7)	44 (12.1)	3 (15.8)	201 (19.5)	141 (18.0)	342 (18.9)
실험·실습중심	42 (15.3)	29 (12.7)	26 (8.7)	18 (12.3)	20 (27.4)	21 (18.9)	93 (31.1)	109 (30.0)	9 (47.4)	210 (20.4)	157 (20.1)	367 (20.3)
사이버수업	11 (4.0)	6 (2.6)	12 (4.0)	4 (2.7)	2 (2.7)	9 (8.1)	12 (4.0)	30 (8.3)		55 (5.3)	31 (4.0)	86 (4.7)
잘 모르겠다	45 (16.4)	24 (10.5)	40 (13.4)	15 (10.3)	17 (23.3)	26 (23.4)	46 (15.4)	58 (16.0)	3 (15.8)	155 (15.1)	119 (15.2)	274 (15.1)
무응답		10 (4.4)	2 (.7)	1 (.7)	1 (1.4)	14 (12.6)	5 (1.7)	5 (1.4)		28 (2.7)	10 (1.3)	38 (2.1)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4-3.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시 주요한 상담원

학생들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의논하는 상대로는 '친구' 47.2%, '어머니' 10.8%, '형제·자매' 10.6%, '선·후배' 8.2%, '아버지' 7.2%로 나타났고, 5.6%의 학생이 '혼자 해결' 한다고 응답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친구' 50.3%, '혼자 해결' 17.3%, '어머니' 15.4%의 순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친구나 어머니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친구'와 '어머니', '형제·자매'와 상담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아버지', '교수'나 '교직원', '친척'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시 주요한 상담원

〈단위 : 명(%)〉

구분 상담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버 지	15 (5.5)	13 (5.7)	17 (5.7)	9 (6.2)	7 (9.6)	13 (11.7)	31 (10.4)	24 (6.6)	1 (5.3)	94 (9.1)	36 (4.6)	130 (7.2)
어 머 니	43 (15.7)	21 (9.2)	33 (11.0)	14 (9.6)	5 (6.8)	8 (7.2)	31 (10.4)	37 (10.2)	3 (15.8)	79 (7.7)	116 (14.8)	195 (10.8)
형 제 · 자 매	27 (9.9)	23 (10.1)	36 (12.0)	16 (11.0)	4 (5.5)	7 (6.3)	29 (9.7)	43 (11.8)	7 (36.8)	88 (8.6)	104 (13.3)	192 (10.6)
친 척	3 (1.1)	1 (.4)	7 (2.3)	3 (2.1)	4 (5.5)	1 (.9)	2 (.7)	5 (1.4)		18 (1.7)	8 (1.0)	26 (1.4)
친 구	124 (45.3)	116 (50.9)	139 (46.5)	78 (53.4)	28 (38.4)	39 (35.1)	145 (48.5)	182 (50.1)	5 (26.3)	479 (46.6)	377 (48.1)	856 (47.2)
선 · 후 배	23 (8.4)	18 (7.9)	27 (9.0)	16 (11.0)	6 (8.2)	7 (6.3)	28 (9.4)	20 (5.5)	3 (15.8)	79 (7.7)	69 (8.8)	148 (8.2)
교 수	5 (1.8)	4 (1.8)	4 (1.3)	1 (.7)	5 (6.8)	1 (.9)	6 (2.0)	3 (.8)		22 (2.1)	7 (.9)	29 (1.6)
교 직 원		2 (.9)	2 (.7)	1 (.7)	1 (1.4)	4 (3.6)	2 (.7)	2 (.6)		12 (1.2)	2 (.3)	14 (.8)
혼 자 해 결	20 (7.3)	16 (7.0)	20 (6.7)	6 (4.1)	3 (4.1)	4 (3.6)	8 (2.7)	25 (6.9)		68 (6.6)	34 (4.3)	102 (5.6)
상담·봉사센터		1 (.4)			1 (1.4)		1 (.3)			3 (.3)		3 (.2)
교외 상담기관					1 (1.4)	2 (1.8)				3 (.3)		3 (.2)
기 타	10 (3.6)	11 (4.8)	8 (2.7)	1 (.7)	4 (5.5)	13 (11.7)	9 (3.0)	14 (3.9)		53 (5.2)	17 (2.2)	70 (3.9)
무 응 답	4 (1.5)	2 (.9)	6 (2.0)	1 (.7)	4 (5.5)	12 (10.8)	7 (2.3)	8 (2.2)		31 (3.0)	13 (1.7)	44 (2.4)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4-3-1〉 대학생들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시 주요한 상담원(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아 버 지	어 머 니	친 구	본인 스스로	기 타
'01	81 (3.6)	266 (11.9)	1234 (55.3)	422 (18.9)	228 (10.2)
'02	70 (3.6)	228 (11.8)	1047 (54.3)	329 (17.1)	255 (13.2)
'03	76 (4.8)	245 (15.4)	801 (50.3)	276 (17.3)	196 (12.2)
'04	130 (7.2)	195 (10.8)	856 (47.2)	102 (5.6)	529 (29.3)

4-4. 자신의 대인관계도

학생들의 대인관계를 보면 '원만'하다는 응답이 61.2%, '그저 그렇다' 19.0%, '매우 원만' 13.5%, '원만치 않음' 2.6%, '매우 원만치 않음'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78.4%가 원만한 반면, 남학생은 71.8%가 원만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또 여학생은 2.5%만이 원만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남학생은 5.3%의 학생이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다고 반응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91.3%의 학생이 원만하다고 응답한 전년에 비해, 올해는 74.7%의 학생만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자연대생, 경상대생, 의과대생이 원만하다고 응답했고, 해양대생, 법정대생, 사범대생은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4-4〉 자신의 대인관계도

〈단위 : 명(%)〉

구 분 대인관계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원만	36 (13.1)	24 (10.5)	36 (12.0)	24 (16.4)	17 (23.3)	16 (14.4)	51 (17.1)	39 (10.7)	1 (5.3)	150 (14.6)	94 (12.0)	244 (13.5)
원만	172 (62.8)	134 (58.8)	202 (67.6)	87 (59.6)	34 (46.6)	47 (42.3)	194 (64.9)	225 (62.0)	14 (73.7)	589 (57.2)	520 (66.4)	1109 (61.2)
그저 그렇다	52 (19.0)	57 (25.0)	40 (13.4)	27 (18.5)	16 (21.9)	29 (26.1)	38 (12.7)	81 (22.3)	4 (21.1)	207 (20.1)	137 (17.5)	344 (19.0)
원만치 않음	8 (2.9)	7 (3.1)	10 (3.3)	5 (3.4)	1 (1.4)	3 (2.7)	6 (2.0)	7 (1.9)		32 (3.1)	15 (1.9)	47 (2.6)
매우 원만치 않음	3 (1.1)	5 (2.2)	4 (1.3)	2 (1.4)	1 (1.4)	3 (2.7)	4 (1.3)	6 (1.7)		23 (2.2)	5 (.6)	28 (1.5)
무응답	3 (1.1)	1 (.4)	7 (2.3)	1 (.7)	4 (5.5)	13 (11.7)	6 (2.0)	5 (1.4)		28 (2.7)	12 (1.5)	40 (2.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4-4-1〉 자신의 대인관계도(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매우 원만함	원만함	그저 그렇다	원만치 않음	매우 원만치 않음	기 타
'01	302 (13.5)	1778 (79.7)		116 (5.2)	15 (0.7)	20 (0.9)
'02	240 (12.4)	1536 (79.6)		118 (6.1)	16 (0.8)	19 (1.0)
'03	216 (13.6)	1239 (77.7)		109 (6.8)	18 (1.1)	12 (0.8)
'04	244 (13.5)	1109 (61.2)	344 (19.0)	47 (2.6)	28 (1.5)	40 (2.2)

### 5. 가치관 및 사회관

#### 5-1.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실력' 이 51.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도(29.2%)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력' 13.7%(전년도 39.1%), '학벌' 7.6%(전년도 4.1%), '인간관계' 7.3%(전년도 9.3%), '가문·배경' 6.3%(전년도 6.0%), '재력' 4.2%(전년도 3.5%), '운' 3.5%(전년도 3.1%), '인격' 3.4%(전년도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녀학생 모두 '실력'을 성공요인의 첫째로 꼽았으며(남학생 45.5%, 여학생 60.2%), 남학생이 '노력', '인간관계', '가문·배경', '운', '재력'을, 여학생은 '학벌'과 '인격'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선택한 성공요인이 '노력', '실력', '인간관계', '가문·배경', '학벌', '인격', '재력', '운'의 순서였는데 올해는 '실력', '노력', '학벌', '인간관계', '가문·배경', '재력', '운'의 순서로 바뀌어 학생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단위 : 명(%)〉

구 분 성공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 별	26 (9.5)	22 (9.6)	23 (7.7)	9 (6.2)	10 (13.7)	8 (7.2)	20 (6.7)	20 (5.5)		75 (7.3)	63 (8.0)	138 (7.6)
가 문 · 배 경	17 (6.2)	15 (6.6)	23 (7.7)	5 (3.4)	3 (4.1)	10 (9.0)	17 (5.7)	23 (6.3)	2 (10.5)	73 (7.1)	42 (5.4)	115 (6.3)
실 력	160 (58.4)	119 (52.2)	150 (50.2)	86 (58.9)	32 (43.8)	35 (31.5)	153 (51.2)	192 (52.9)	12 (63.2)	468 (45.5)	471 (60.2)	939 (51.8)
인 격	10 (3.6)	12 (5.3)	13 (4.3)	4 (2.7)	5 (6.8)	1 (.9)	13 (4.3)	4 (1.1)		34 (3.3)	28 (3.6)	62 (3.4)
인 간 관 계	11 (4.0)	19 (8.3)	25 (8.4)	14 (9.6)	4 (5.5)	9 (8.1)	23 (7.7)	26 (7.2)	2 (10.5)	93 (9.0)	40 (5.1)	133 (7.3)
운	3 (1.1)	4 (1.8)	7 (2.3)	3 (2.1)	4 (5.5)	9 (8.1)	5 (1.7)	29 (8.0)		52 (5.1)	12 (1.5)	64 (3.5)

성공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노 력	33 (12.0)	25 (11.0)	36 (12.0)	21 (14.4)	8 (11.0)	25 (22.5)	46 (15.4)	51 (14.0)	3 (15.8)	157 (15.3)	91 (11.6)	248 (13.7)
재 력	9 (3.3)	11 (4.8)	17 (5.7)	3 (2.1)	4 (5.5)	4 (3.6)	16 (5.4)	12 (3.3)		52 (5.1)	24 (3.1)	76 (4.2)
무 응 답	5 (1.8)	1 (.4)	5 (1.7)	1 (.7)	3 (4.1)	10 (9.0)	6 (2.0)	6 (1.7)		25 (2.4)	12 (1.5)	37 (2.0)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5-1-1〉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가문·배경	실 력	인간관계	노 력	학 별	재 력	기 타
'01	96 (4.3)	840 (37.7)	195 (8.7)	750 (33.6)	102 (4.6)	69 (3.1)	179 (8.1)
'02	94 (4.9)	590 (30.6)	202 (10.5)	710 (36.8)	77 (4.0)	83 (4.3)	173 (9.0)
'03	95 (6.0)	466 (29.2)	149 (9.3)	623 (39.1)	65 (4.1)	55 (3.5)	141 (8.8)
'04	115 (6.3)	939 (51.8)	133 (7.3)	248 (13.7)	138 (7.6)	76 (4.2)	163 (8.9)

5-2.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업문제'로 30.4%를 차지했으며, '빈부의 격차' 23.2%, '부정부패' 18.9%, '정치적 불안정' 10.0%, '경제성장'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을 문제점으로 선택했고, 여학생은 '실업문제', '빈부의 격차', '정치적 불안정', '향락 및 사치문제'를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 대학별로는 인문대생, 경상대생, 사범대생, 자연대생, 법정대생, 생명대생이 '실업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해양대생은 '부정부패'를, 의과대생은 '빈부의 격차'와 '정치적 불안정'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 제 성 장	16 (5.8)	9 (3.9)	17 (5.7)	7 (4.8)	8 (11.0)	8 (7.2)	23 (7.7)	27 (7.4)	3 (15.8)	71 (6.9)	47 (6.0)	118 (6.5)
실 업 문 제	91 (33.2)	68 (29.8)	92 (30.8)	45 (30.8)	20 (27.4)	25 (22.5)	91 (30.4)	115 (31.7)	3 (15.8)	311 (30.2)	239 (30.5)	550 (30.4)
빈 부 의 격 차	65 (23.7)	57 (25.0)	79 (26.4)	32 (21.9)	11 (15.1)	15 (13.5)	72 (24.1)	85 (23.4)	4 (21.1)	217 (21.1)	203 (25.9)	420 (23.2)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향락 및 사치문제	12 (4.4)	1 (.4)	7 (2.3)	3 (2.1)	2 (2.7)		12 (4.0)	7 (1.9)	2 (10.5)	19 (1.8)	27 (3.4)	46 (2.5)
정치적 불안정	28 (10.2)	23 (10.1)	30 (10.0)	14 (9.6)	15 (20.5)	7 (6.3)	29 (9.7)	31 (8.5)	4 (21.1)	99 (9.6)	82 (10.5)	181 (10.0)
부 정 부 패	45 (16.4)	52 (22.8)	57 (19.1)	36 (24.7)	10 (13.7)	26 (23.4)	50 (16.7)	63 (17.4)	3 (15.8)	204 (19.8)	138 (17.6)	342 (18.9)
청 소 년 비 행	1 (.4)	3 (1.3)	2 (.7)			2 (1.8)	5 (1.7)	4 (1.1)		11 (1.1)	6 (.8)	17 (.9)
환 경 오 염	2 (.7)	3 (1.3)	1 (.3)	5 (3.4)	2 (2.7)	2 (1.8)	3 (1.0)	3 (.8)		13 (1.3)	8 (1.0)	21 (1.2)
사 회 질 서	5 (1.8)		4 (1.3)	1 (.7)		5 (4.5)	2 (.7)	7 (1.9)		17 (1.7)	7 (.9)	24 (1.3)
국 가 안 보		2 (.9)	2 (.7)			2 (1.8)	1 (.3)	3 (.8)		9 (.9)	1 (.1)	10 (.6)
북한과의 관계	2 (.7)	4 (1.8)	2 (.7)		2 (2.7)	4 (3.6)	1 (.3)	5 (1.4)		16 (1.6)	4 (.5)	20 (1.1)
불 신 풍 조	5 (1.8)	4 (1.8)	1 (.3)	2 (1.4)		2 (1.8)	4 (1.3)	7 (1.9)		15 (1.5)	10 (1.3)	25 (1.4)
무 응 답	2 (.7)	2 (.9)	5 (1.7)	1 (.7)	3 (4.1)	13 (11.7)	6 (2.0)	6 (1.7)		27 (2.6)	11 (1.4)	38 (2.1)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5-2-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경제·실업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정치적 불안정	사치 및 부정부패 문제	기 타
'01	503 (22.5)	358 (16.0)	496 (22.2)	463 (20.8)	411 (18.4)
'02	275 (14.3)	345 (17.9)	477 (24.7)	480 (24.9)	352 (18.3)
'03	240 (15.1)	387 (24.3)	249 (15.6)	306 (19.2)	412 (25.9)
'04	668 (36.9)	420 (23.2)	181 (10.0)	388 (21.4)	155 (8.6)

5-3.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학생들은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개발 문제' 29.2%(전년도 24.2%), '문화 시설의 낙후성문제' 20.0%(전년도 16.8%), '농업문제' 9.2%(전년도 17.6%), '국제자유도시 개발문제' 7.4%(전년도 10.0%)라고 응답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역개발 문제가 5.0% 상승한 반면 '농업문제'는 8.4% 감소하였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지역개발 문제'는 공과대, '농업문제'는 생명

대, '상공업의 약화'는 공과대, 의과대생은 '문화시설의 낙후성문제'와 '교육문제', '국제자유도시 개발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은 '지역개발 문제' (31.6%)에, 여학생은 '문화시설의 낙후성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문제점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청소년 비행문제		10 (3.6)	4 (1.8)	3 (1.0)	2 (1.4)	7 (9.6)	7 (6.3)	15 (5.0)	15 (4.1)		45 (4.4)	18 (2.3)	63 (3.5)
지역개발 문제		64 (23.4)	80 (35.1)	78 (26.1)	41 (28.1)	18 (24.7)	28 (25.2)	86 (28.8)	133 (36.6)	2 (10.5)	325 (31.6)	205 (26.2)	530 (29.2)
상공업의 약화		8 (2.9)	13 (5.7)	10 (3.3)	8 (5.5)	3 (4.1)	6 (5.4)	8 (2.7)	33 (9.1)	1 (5.3)	67 (6.5)	23 (2.9)	90 (5.0)
교통 문제		8 (2.9)	7 (3.1)	12 (4.0)	5 (3.4)	1 (1.4)	6 (5.4)	16 (5.4)	7 (1.9)		32 (3.1)	30 (3.8)	62 (3.4)
문화시설의 낙후성문제		84 (30.7)	54 (23.7)	50 (16.7)	40 (27.4)	8 (11.0)	11 (9.9)	47 (15.7)	61 (16.8)	7 (36.8)	133 (12.9)	229 (29.2)	362 (20.0)
환경보존 문제		11 (4.0)	7 (3.1)	4 (1.3)	3 (2.1)	5 (6.8)	3 (2.7)	11 (3.7)	17 (4.7)		34 (3.3)	27 (3.4)	61 (3.4)
교육 문제		14 (5.1)	16 (7.0)	13 (4.3)	14 (9.6)	4 (5.5)	14 (12.6)	23 (7.7)	20 (5.5)	4 (21.1)	69 (6.7)	53 (6.8)	122 (6.7)
농업 문제		25 (9.1)	21 (9.2)	26 (8.7)	13 (8.9)	11 (15.1)	8 (7.2)	23 (7.7)	38 (10.5)	2 (10.5)	110 (10.7)	57 (7.3)	167 (9.2)
국제자유도시 개발 문제		27 (9.9)	20 (8.8)	22 (7.4)	9 (6.2)	5 (6.8)	3 (2.7)	22 (7.4)	24 (6.6)	2 (10.5)	68 (6.6)	66 (8.4)	134 (7.4)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름		12 (4.4)	5 (2.2)	74 (24.7)	10 (6.8)	7 (9.6)	13 (11.7)	41 (13.7)	9 (2.5)	1 (5.3)	115 (11.2)	57 (7.3)	172 (9.5)
무응답		11 (4.0)	1 (.4)	7 (2.3)	1 (.7)	4 (5.5)	12 (10.8)	7 (2.3)	6 (1.7)		31 (3.0)	18 (2.3)	49 (2.7)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5-3-1〉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지역개발 문제	문화시설의 낙후성 문제	교육문제	농업 문제	국제자유도시 개발문제	기 타
'01	783 (35.1)	594 (26.6)	115 (5.2)	126 (5.6)		613 (27.5)
'02	670 (34.7)	397 (20.6)	143 (7.4)	115 (6.0)		604 (31.4)
'03	385 (24.2)	267 (16.8)	81 (5.1)	281 (17.6)	160 (10.0)	420 (26.5)
'04	530 (29.2)	362 (20.0)	122 (6.7)	167 (9.2)	134 (7.4)	497 (27.5)

6. 상담·봉사센터 이용

6-1. 필요시 상담·봉사센터의 상담 희망 여부

학생이 개인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하여는 '받고 싶다' 50.8%(전년도 58.0%), '받고 싶지 않다' 46.4%(전년도 39.5%)로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여학생 53.8%, 남학생 48.5%) 5.3% 정도 더 상담을 받고 싶어하고, 대학별로는 의과대생, 자연대생, 인문대생, 사범대생, 법정대생, 생명대생이 상담을 원하고, 공과대생, 경상대생이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필요시 상담·봉사센터의 상담 희망 여부

〈단위: 명(%)〉

희망여부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받고 싶다		150 (54.7)	118 (51.8)	144 (48.2)	77 (52.7)	37 (50.7)	55 (49.5)	180 (60.2)	144 (39.7)	15 (78.9)	499 (48.5)	421 (53.8)	920 (50.8)
받고 싶지 않다		117 (42.7)	108 (47.4)	149 (49.8)	68 (46.6)	31 (42.5)	42 (37.8)	111 (37.1)	210 (57.9)	4 (21.1)	497 (48.3)	343 (43.8)	840 (46.4)
무 응 답		7 (2.6)	2 (.9)	6 (2.0)	1 (.7)	5 (6.8)	14 (12.6)	8 (2.7)	9 (2.5)		33 (3.2)	19 (2.4)	52 (2.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표 6-1-1〉 필요시 상담·봉사센터의 상담 희망 여부(최근 4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음	기 타
'01	1209 (54.2)	969 (43.4)	53 (2.4)
'02	1002 (51.9)	856 (44.4)	71 (3.7)
'03	925 (58.0)	629 (39.5)	40 (2.5)
'04	920 (50.8)	840 (46.4)	52 (2.9)

6-2. 필요한 상담내용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내용을 보면 '학업문제' 8.7%, '취업문제' 8.4%, '진학문제' 5.8%, '대학생활 적응문제' 5.6%, '적성문제' 4.8%, '유학문제' 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인생 및 가치관 확립문제' 1.7%, '성격 및 정서문제' 1.3%, '대인관계' 1.3%, '경제적인 문제' 1.3%, '시간관리' 1.0%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대학생활 적응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상담을 원했고, 여학생은 '학업문제', '취업문제', '진학문제', '적성문제'의 상담을 더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인문대생, 경상대생, 사범대생, 공과대생은 '취업문제'를, 법정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은 '학업문제'를, 의과대생은 '대학생활 적응문제'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필요한 상담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심리검사 구분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대학생활	32 (5.8)	22 (4.8)	37 (6.2)	17 (5.8)	8 (5.5)	11 (5.0)	37 (6.2)	31 (4.3)	7 (18.4)	120 (5.8)	82 (5.2)	202 (5.6)
학업문제	52 (9.5)	47 (10.3)	47 (7.9)	23 (7.9)	11 (7.5)	19 (8.6)	65 (10.9)	45 (6.2)	6 (15.8)	177 (8.6)	138 (8.8)	315 (8.7)
적성문제	27 (4.9)	29 (6.4)	25 (4.2)	15 (5.1)	10 (6.8)	6 (2.7)	36 (6.0)	24 (3.3)	1 (2.6)	88 (4.3)	85 (5.4)	173 (4.8)
취업문제	53 (9.7)	43 (9.4)	55 (9.2)	27 (9.2)	9 (6.2)	11 (5.0)	51 (8.5)	49 (6.7)	6 (15.8)	146 (7.1)	158 (10.1)	304 (8.4)
진학문제	27 (4.9)	20 (4.4)	30 (5.0)	19 (6.5)	13 (8.9)	9 (4.1)	48 (8.0)	45 (6.2)	1 (2.6)	115 (5.6)	97 (6.2)	212 (5.8)
유학문제	25 (4.6)	17 (3.7)	15 (2.5)	10 (3.4)	3 (2.1)	5 (2.3)	15 (2.5)	8 (1.1)	1 (2.6)	40 (1.9)	59 (3.8)	99 (2.7)
성격서문	12 (2.2)	5 (1.1)	5 (.8)	5 (1.7)	2 (1.4)	6 (2.7)	6 (1.0)	7 (1.0)		27 (1.3)	21 (1.3)	48 (1.3)
대인관계	5 (.9)	9 (2.0)	7 (1.2)	4 (1.4)		3 (1.4)	9 (1.5)	9 (1.2)		23 (1.1)	23 (1.5)	46 (1.3)
인생 및 가치관 확립문제	9 (1.6)	9 (2.0)	11 (1.8)	6 (2.1)	3 (2.1)	3 (1.4)	11 (1.8)	5 (.7)	3 (7.9)	29 (1.4)	31 (2.0)	60 (1.7)
가정 및 가족문제	4 (.7)	1 (.2)	4 (.7)	2 (.7)		1 (.5)	2 (.3)	5 (.7)		9 (.4)	10 (.6)	19 (.5)
경제적인 문제	10 (1.8)	4 (.9)	10 (1.7)	2 (.7)	1 (.7)	3 (1.4)	7 (1.2)	11 (1.5)		31 (1.5)	17 (1.1)	48 (1.3)
건강문제	2 (.4)		3 (.5)	1 (.3)		3 (1.4)	2 (.3)	3 (.4)		9 (.4)	5 (.3)	14 (.4)
음주 및 연문제	1 (.2)				1 (.7)	1 (.5)	1 (.2)	2 (.3)		6 (.3)		6 (.2)
시간관리	5 (.9)	5 (1.1)	8 (1.3)	4 (1.4)	1 (.7)	2 (.9)	6 (1.0)	3 (.4)	1 (2.6)	18 (.9)	17 (1.1)	35 (1.0)
이성문제	1 (.2)	2 (.4)	2 (.3)	1 (.3)	1 (.7)	2 (.9)	2 (.3)	4 (.6)		12 (.6)	3 (.2)	15 (.4)
성문제	2 (.4)		1 (.2)			2 (.9)	1 (.2)	4 (.6)		10 (.5)		10 (.3)
외모문제	2 (.4)	1 (.2)		1 (.3)				1 (.1)		4 (.2)	1 (.1)	5 (.1)
종교문제		1 (.2)				1 (.5)				2 (.1)		2 (.1)
기타	7 (1.3)	2 (.4)	2 (.3)	3 (1.0)	6 (4.1)	12 (5.4)	5 (.8)	8 (1.1)		31 (1.5)	14 (.9)	45 (1.2)
무응답	272 (49.6)	239 (52.4)	336 (56.2)	152 (52.1)	77 (52.7)	122 (55.0)	294 (49.2)	462 (63.6)	12 (31.6)	1161 (56.4)	805 (51.4)	1966 (54.2)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6-3. 상담봉사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심리검사

학생들이 상담·봉사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심리검사는 '적성탐색검사' 30.2%, '성격검사' 21.5%, '직업흥미검사' 16.4%, '자아개념검사' 6.8%, '욕구진단검사'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성격검사', '욕구진단검사' 를, 여학생은 '적성탐색검사', '직업흥미검사', '자아개념검사' 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대학별로 보면 '적성탐색검사' 와 '성격검사' 는 자연대생, '직업흥미검사' 는 경상대생, '자아개념검사' 는 의과대생, '욕구진단검사' 는 공과대생이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상담봉사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심리검사

〈단위: 명(%)〉

심리검사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성 격 검 사		61 (22.3)	43 (18.9)	60 (20.1)	33 (22.6)	17 (23.3)	16 (14.4)	79 (26.4)	78 (21.5)	3 (15.8)	242 (23.5)	148 (18.9)	390 (21.5)
적 성 탐 색 검 사		87 (31.8)	72 (31.6)	93 (31.1)	49 (33.6)	19 (26.0)	24 (21.6)	103 (34.4)	95 (26.2)	5 (26.3)	260 (25.3)	287 (36.7)	547 (30.2)
욕 구 진 단 검 사		9 (3.3)	18 (7.9)	14 (4.7)	6 (4.1)	6 (8.2)	7 (6.3)	16 (5.4)	31 (8.5)		82 (8.0)	25 (3.2)	107 (5.9)
자 아 개 념 검 사		17 (6.2)	19 (8.3)	21 (7.0)	10 (6.8)	3 (4.1)	10 (9.0)	24 (8.0)	15 (4.1)	5 (26.3)	70 (6.8)	54 (6.9)	124 (6.8)
직 업 흥 미 검 사		48 (17.5)	37 (16.2)	64 (21.4)	13 (8.9)	15 (20.5)	18 (16.2)	34 (11.4)	65 (17.9)	4 (21.1)	148 (14.4)	150 (19.2)	298 (16.4)
어떤 종류의 심리 검사 있는지 모름		21 (7.7)	15 (6.6)	15 (5.0)	15 (10.3)	3 (4.1)	6 (5.4)	16 (5.4)	15 (4.1)	1 (5.3)	65 (6.3)	42 (5.4)	107 (5.9)
받고 싶지 않다		17 (6.2)	7 (3.1)	13 (4.3)	8 (5.5)	3 (4.1)	11 (9.9)	10 (3.3)	24 (6.6)		66 (6.4)	27 (3.4)	93 (5.1)
무 응 답		14 (5.1)	17 (7.5)	19 (6.4)	12 (8.2)	7 (9.6)	19 (17.1)	17 (5.7)	40 (11.0)	1 (5.3)	96 (9.3)	50 (6.4)	146 (8.1)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6-4. 입학 후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여부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77.3%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19.3%의 학생이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의 77.3%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했고(남학생 58.3%), 대학별로는 사범대생, 의과대생, 법정대생, 인문대생, 자연대생, 경상대생의 순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6-4〉 입학 후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예	199 (72.6)	166 (72.8)	196 (65.6)	112 (76.7)	43 (58.9)	51 (45.9)	204 (68.2)	220 (60.6)	14 (73.7)	600 (58.3)	605 (77.3)	1205 (66.5)
아 니 오	70 (25.5)	49 (21.5)	92 (30.8)	27 (18.5)	25 (34.2)	41 (36.9)	81 (27.1)	129 (35.5)	4 (21.1)	367 (35.7)	151 (19.3)	518 (28.6)
무 응 답	5 (1.8)	13 (5.7)	11 (3.7)	7 (4.8)	5 (6.8)	19 (17.1)	14 (4.7)	14 (3.9)	1 (5.3)	62 (6.0)	27 (3.4)	89 (4.9)
계	274 (100.0)	228 (100.0)	299 (100.0)	146 (100.0)	73 (100.0)	111 (100.0)	299 (100.0)	363 (100.0)	19 (100.0)	1029 (100.0)	783 (100.0)	1812 (100.0)

6-5.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 활동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분야는 '재가복지' 20.1%, '업무보조' 19.6%, '시설·기관에서의 단순노력 봉사' 18.0%, '학습 및 생활지도' 15.6%,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9.5%, '전문 기술 봉사' 7.0%, '상담봉사' 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인문대생과 법정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은 '재가복지'를, 공과대생은 '업무보조'를, 생명대생, 경상대생은 '시설·기관에서의 단순노력 봉사', '학습 및 생활지도'는 사범대생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업무보조', '시설·기관에서의 단순노력 봉사',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에 관심을 보였고, 여학생들은 '재가복지', '학습 및 생활지도', '전문 기술 봉사', '상담봉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 활동

〈단위: 명(%)〉

구분 활동내용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시설·기관에서의 단순노력봉사	30 (15.1)	27 (16.3)	46 (23.5)	15 (13.4)	12 (27.9)	10 (19.6)	37 (18.1)	37 (16.8)	3 (21.4)	115 (19.2)	102 (16.9)	217 (18.0)
업 무 보 조	30 (15.1)	33 (19.9)	32 (16.3)	19 (17.0)	7 (16.3)	4 (7.8)	32 (15.7)	78 (35.5)	1 (7.1)	150 (25.0)	86 (14.2)	236 (19.6)
학 습 지 도 생 활 지 도	34 (17.1)	17 (10.2)	32 (16.3)	36 (32.1)	7 (16.3)	3 (5.9)	33 (16.2)	21 (9.5)	5 (35.7)	80 (13.3)	108 (17.9)	188 (15.6)
프 로 그 램 진 행 및 보 조	15 (7.5)	19 (11.4)	22 (11.2)	6 (5.4)	5 (11.6)	8 (15.7)	16 (7.8)	22 (10.0)	1 (7.1)	66 (11.0)	48 (7.9)	114 (9.5)
재 가 복 지	46 (23.1)	43 (25.9)	43 (21.9)	22 (19.6)	4 (9.3)	12 (23.5)	41 (20.1)	30 (13.6)	1 (7.1)	100 (16.7)	142 (23.5)	242 (20.1)
상 담 봉 사	13 (6.5)	15 (9.0)	5 (2.6)	3 (2.7)	3 (7.0)	3 (5.9)	7 (3.4)	5 (2.3)	1 (7.1)	18 (3.0)	37 (6.1)	55 (4.6)
전 문 기 술 봉 사	16 (8.0)	5 (3.0)	7 (3.6)	6 (5.4)	1 (2.3)	5 (9.8)	26 (12.7)	16 (7.3)	2 (14.3)	33 (5.5)	51 (8.4)	84 (7.0)
기 타	14 (7.0)	7 (4.2)	8 (4.1)	5 (4.5)	4 (9.3)	6 (11.8)	11 (5.4)	9 (4.1)		36 (6.0)	28 (4.6)	64 (5.3)
무 응 답	1 (.5)		1 (.5)				1 (.5)	2 (.9)		2 (.3)	3 (.5)	5 (.4)
계	199 (100.0)	166 (100.0)	196 (100.0)	112 (100.0)	43 (100.0)	51 (100.0)	204 (100.0)	220 (100.0)	14 (100.0)	600 (100.0)	605 (100.0)	1205 (100.0)

## 6-6.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수강 의사는 61.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36.8%가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 남녀별로는 여학생(61.8%)보다 남학생(62.0%)이 더 관심을 보였고, 대학별로는 의과대생이 85.7%의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단위: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있	128 (64.3)	114 (68.7)	110 (56.1)	65 (58.0)	26 (60.5)	35 (68.6)	131 (64.2)	125 (56.8)	12 (85.7)	372 (62.0)	374 (61.8)	746 (61.9)	
없	69 (34.7)	51 (30.7)	84 (42.9)	47 (42.0)	15 (34.9)	15 (29.4)	70 (34.3)	91 (41.4)	2 (14.3)	220 (36.7)	224 (37.0)	444 (36.8)	
무 응 답	2 (1.0)	1 (.6)	2 (1.0)		2 (4.7)	1 (2.0)	3 (1.5)	4 (1.8)		8 (1.3)	7 (1.2)	15 (1.2)	
계	199 (100.0)	166 (100.0)	196 (100.0)	112 (100.0)	43 (100.0)	51 (100.0)	204 (100.0)	220 (100.0)	14 (100.0)	600 (100.0)	605 (100.0)	1205 (100.0)	

## IV. 요약 및 제언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본 조사·연구는 '04년 신입생 2,83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실시하였으며 64%인 1,812명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본 조사를 분석하여 요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전체의 60.4%가 제주시에 해당하며, 본도에 거주하는 신입생이 총 87.2%이고, 타 시·도는 12.3%에 해당한다.

**둘째**, 신입생들 중에는 재수를 경험한 학생이 9.7%로, 이는 전년도에 7.3%보다 2.4%증가한 것으로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알맞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재수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입생들의 보호자는 아버지가 84.9%이며, 양친이 모두 생존·동거하는 신입생들은 84.8%이고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지만 별거중이거나 이혼인 경우도 7.8%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호자의 학력은 대학 중퇴 이상이 33.7%로 전년도의 29.1%보다 증가하여 보호자의 학력이 해

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의 직업은 제주도의 특성상 농·수·어·임업이 18.9%로 가장 많았으며 관광산업과 연계된 직업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수입은 150만원 이상이 25.5%였지만 가족의 월수입을 모른다는 응답도 53.0%나 되어 학생들은 가족의 경제적인 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입생들의 가정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화목했고(77.1%), 학생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느낌은 78.8%가 편안하다고 응답했지만 불편한 느낌을 갖는 학생도 3.9%나 되었다. 또한 부모가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81.0%가 관심을 보인다고 응답했지만 관심이 적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2.3%나 된다는 것은 부모의 관심도와 학생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느낌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신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73.4%가 건강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주로 보호자가 부담(86.4%)하지만, 이는 전년도의 87.3%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 6.8%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신입생의 대학 진학의 목적은 주로 유망한 직업(39.6%)을 갖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소질 개발(24.3%)과 전문적 지식습득(20.4%)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공공부(32.7%)와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25.3%)이며, 재학 중에 해외여행이나 외국 연수에 대한 생각은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79.5%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장래 진로에 대한 방향수립에는 꾸준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신입생들은 재학 중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응답이 56.9%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2.9%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응답이 9.6% 나왔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도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본교 홈페이지에 대하여 50.6%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래 갖고 싶은 직종은 전공을 살릴수 있고,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대학생활에서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는 취미분야로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며,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위함이고, 반대로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심이 필요하다.

**아홉째**, 신입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이라고 응답하였고, 대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에는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배양과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열번째,** 신입생들의 38.3%는 입학하기 전에 제주대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87.7%의 학생은 제주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지원하였다는 응답을 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모르고 지원한 학생 32.6%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대를 지원할 때 고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합격가능성에 맞췄다는 응답이 28.0%이고 그 다음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춘 것(24.5%)으로 나타나 우선 합격만 하고 보자는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할 때 정보를 수집한 경로는 신세대답게 본교 홈페이지를 통했다는 응답이 38.5%로,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반면에 본교 대학설명회는 전년도에 4.7%보다 낮은 3.0%에 지나지 않아 학교를 홍보하는데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번째,** 본교가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는 대학설명회가 학생들의 진학준비에 미치는 영향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보다(33.7%) 그저 그렇거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반응이 크게 나타났으며, 11~12월중에 실시하는 홍보방송에 대한 반응 역시 25.3%만이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느껴졌다. 타시도에서 본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은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나, 타시도 고교 출신 교수 및 재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해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반응이 높았는데 이는 홍보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며, 입시에 대한 홍보는 담당부서만이 아닌 모든 제대인이 힘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번째,** 신입생들은 본교에 입학한 것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자랑스러워하였고, 지망한 학부(과)는 고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 전에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1~2학년때 자신의 진로에 관한 학부(과)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예년보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맞춰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입학원서 접수 시기에 즈음해서 결정하는 안이함과 무계획성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보인다.

**열세번째,** 신입생들은 자신의 학과나 학부, 학과군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입학 후에 타과로의 전과에 대하여는 그저 대충 알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복수전공에 대한 인지도 역시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 알고 있었다.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은 사범대, 인문대, 경상대, 공과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취업의 어려움을 입학 초기부터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네번째,** 신입생들은 교수에게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해와 관심으로 접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강의 중심이나 실험·실습 중심의 강의방법을 원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로 친구나 어머니와 상의하였고, 형제·자매나 아버지와도 상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의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주로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만치 않은 학생도 4.1%나 되어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다섯번째**, 신입생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운이나 재력보다는 실력이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신입생들이 응답한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은 실력, 노력, 학벌, 인간관계 등의 순서로 전년도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업문제라고 응답했는데 전년도에 빈부의 격차문제가 1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실업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지역의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과 문화시설의 낙후성을 들고 있어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의식을 개혁하고 제주지역 개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열여섯번째**, 신입생들은 개인 문제가 있을 때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50.8%로 상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지만 46.4%가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점을 미루어 아직 자신의 문제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하는 상담 내용으로는 학업문제나 취업문제, 진학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들은 적성탐색 검사나 성격검사를 받고 싶어 하며, 입학 후에는 재가복지나 업무보조, 시설·기관에서의 단순노력봉사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교과목에 수강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하여 사회 경험을 쌓고 사회봉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金斗和, '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3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2.  
金斗和,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4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3.  
金斗和,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5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4.

**<Abstract>**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2004**

**SEo, Jeong-Jo, Kim, Doo-Hwa, Kim, Sung-Hyun**

The purposes of this survey are to collect and analyze basic data on freshmen, to understand students' general matters and to utilize the data as basic materials for student guidance and administration; to find out the students' general matters, we asked freshmen about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 values, university life, impression and pride on university, the reason for choosing their majors, whether they will keep studying, the relations with professors, life in their high school, social relationship, the point of view on social issues, and to what extent they turn to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832 freshmen during the orientation course in 2004, and 1,812 students (64% of the total) answe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ost freshmen live in Jeju. The number of students from other regions and cities is also increasing gradually, so the university should create conditions to accommodate those who want to use the dormitory

2. The increase in students who have entered the university after taking entrance examination more than once indicates that they want to pursue a study in line with their aptitude. Most students' supporters are their fathers. 84.8% of the respondents have both a father and a mother, which shows that broken families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parents is getting higher. They are mostly engaged in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Many students' family income is over 1.5 million won a month, but a lot of students do not know about their financial status, showing their indifference in home economy.

3. Most of the freshmen replied that they live happily with their family. As to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most were positive, but some students feel uncomfortable with their parents or even say their parents do not care about them.

4. About their mental and emotional status, 73.4% showed a positive response. Their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are primarily covered by their parents, but the number of such students has decreased compared to last year.

5. Their motivation of university entrance is to get well-paid jobs, develop their abilities and acquire professional knowledge. They want to make many friends and study hard. 79.5% of respondents said they want to study or travel abroad. Accordingly, the authorities need to offer as many chances as possible.

6. Most students do not want to live in the dormitory, and many (43.9%) want scholarship and part-time jobs to pay tuition fees and other expenses so that more funds and programs for scholarship should be secured. Most of the freshmen are satisfied with the CNU website. They want to study a major that can be related to the career to pursue.

7. Some respondents said they will join clubs for their hobby or sports because they want to make many friends and do much experience. Others said they do not want to join any club because they do not feel any need. Programs to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a club should be developed.

8. They think; what is important in their life is leading a financially stable life and the exertion of their ability, and the attitude they have as a college student is to prepare themselves to become an able member of society and intellectuals.

9. The freshmen had a good impression 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NU) before entering the university, but most of them do not know well about CNU, which means public relations were not enough. What they took into account when applying was the possibility of success given their scores. Their aptitude and qualifications were second. They got information on the university mostly from the website of CNU. This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on-line homepages.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ity exposition tour arranged by CNU turned out to be of little help to applicants.

10. The publicity commercial conducted every November- December does not attract attention from students. Among means of public relations targeting students living outside Jeju, nationwide mass media or in-person visit to high school bear good result. Publicity activities need not only efforts of officials in charge but also attention of all staff, faculty and students of the university.

11. Most of the freshmen are proud of entering CNU. They decide their major when they were in their third year of high school or during the applying period. The number of students who decided their major when they were in middle school is on the decrease, which indicates that students select their major without discretion instead of setting a goal in advance and trying to achieve it.

12. Freshmen a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However, they neither know well about a transfer system nor a double major system. As to double major, the most preferred second major is education. The reason for pursuing double major is to have more chance of employment, which shows students understand the difficulty in getting a job from the beginning of entrance.

13. The students expect advice on fields of study as well as close relations from them. The students have relatively integrated relations with others. They prefer lecturer-centered or experiment classes. When faced with troubles, they talk to their friends or mother, in some cases to their siblings and father. The social relations are largely good, but 4.1% confessed to their problem in relations with others. Programs for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improvement are needed.

14. Freshmen consider efforts and capability as the requirements for social success. They picked unemployment as the most serious problem faced with Korean society. They consider poor local development and backward cultural facilities as challenges faced by Jeju. Therefore, social and political leaders are urged to realize the situation and deal with regional development of Jeju with caution.

15. The students want to get advice from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on personal problems. What they want to talk about are jobs, scholastic performance and graduate schools. They want to take aptitude tests.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volunteering to help others. Many students want to build their social experience through volunteer public service, so various servic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